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학위논문

기업 SDGs 활동유형에 대한 연구 :
지속가능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8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공공인재·금융협동과정

강주현

경영학석사학위논문

기업 SDGs 활동유형에 대한 연구 :
지속가능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재원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8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공공인재·금융협동과정

강주현

강주현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5년 8월 22일



위원장 경영학박사 홍재범 (인)

위원 경영학박사 안세룡 (인)

위원 행정학박사 이재원 (인)

목 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 배경과 목적	1
1.2 연구 방법 및 연구 모델	3
1.3 연구 질문	6
제2장 SDGs에 대한 개념과 형성 배경	7
2.1 지속가능발전 개념	7
2.2 SDGs의 등장과 구조	10
2.3 기업의 SDGs에 대한 네 가지 관점	14
2.4 선행연구 정리	18
제3장 기업 SDGs의 현황과 특성	20
3.1 기업 SDGs의 현황	20
3.2 SDGs의 구조 및 특징	25
3.3 해외 기업의 SDGs 수용 사례	27
3.4 SDGs 이행의 현실적 격차와 기업 보고의 한계	29
3.5 기업 SDGs 보고 분석을 위한 외부 기준	30

제4장 지속가능보고서 분석과 SDGs 활동 유형화 비교	32
4.1 분석 대상 및 자료 구성	32
4.2 SDGs 활동 유형별 분류 기준	34
4.3 활동의 유형 분포 및 구조적 특성 분석	36
4.4 유형별 대표 사례 분석	42
4.5 소결	58
제5장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SDGs 전략과제	61
5.1 목표와 활동 간 연결 체계성 강화	62
5.2 활동 내용의 구체성 강화	64
5.3 활동 성과의 객관성 제고	66
5.4 이해관계자 맞춤형 보고체계 정립	68
제6장 결론	71
6.1 연구 성과 및 기여	71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4
참고문헌	76

표 목 차

<표 2-1> SDGs 이전까지의 지속 가능 개발 흐름	7
<표 2-2> UN SDGs의 17개 목표	13
<표 2-3> 주요 이론적 관점	15
<표 3-1> 지속가능보고서 SDGs 기술 방식 유형	22
<표 3-2>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대한 외부 기준	30
<표 4-1> 유형별 대표 기업 정보	33
<표 4-2> 활동 유형	36
<표 4-3> 프로그램 유형 분류	37
<표 4-4> SDGs 활동 유형 분포	38
<표 4-5> 분석틀	43
<표 4-6> 현대모비스의 SDGs 활동 분석	45
<표 4-7> 현대일렉트릭의 SDGs 활동 분석	49
<표 4-8> 포스코 퓨처엠의 SDGs 활동 분석	51
<표 4-9> 깨끗한 나라의 SDGs 활동 분석	55
<표 4-10> 휠라홀딩스의 SDGs 활동 분석	57
<표 5-1> 기업 SDGs 보고의 구조적 한계 유형	6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모델	5
<그림 3-1> 지속가능 보고서 추세	21
<그림 3-2> 본문과 부록에 세부목표와 함께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	22
<그림 3-3> 본문과 부록에 세부목표 없이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	23
<그림 3-4> 본문에 세부목표 없이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	24
<그림 3-5> 본문에 세부목표와 함께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	24
<그림 4-1> 현대모비스의 2023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44
<그림 4-2> 현대일렉트릭의 2023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47
<그림 4-3> 포스코퓨처엠 2023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50
<그림 4-4> 깨끗한 나라 2023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53
<그림 4-5> 휠라홀딩스 2023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56

A Study on the Types of Corporate SDG Activities : Focusing on Sustainability Reports

Kang-Ju Hy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ublic Leadership and Financ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ypologies of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tivities disclosed 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of such reporting practices. A total of 161 sustainability reports published in 2023 by KRX-listed companies were fully reviewed, and 880 individual SDG-related activities from 30 selected companies were extracted and analyzed.

This study classifies the activities into five types based on the logical relevance between the SDG goals and the reported activities, and applie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cludes four key criteria: linkage validity, specificity of description, identification of beneficiaries, and presentation of outcomes. Both quantitative distribution and qualitative examples were analyzed to diagnose repeated structural patterns in reporting.

The findings show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companies attach SDG

goals to activities in a retrospective or symbolic manner, often without strategic integration or conceptual alignment. Structural issues such as inconsistent reporting formats, absence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lack of beneficiary identification were also frequently observed.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practical function of SDG reporting, including establishing clear linkage structures, standardizing disclosure formats, and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social impact.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ustainability Reporting, Reporting Structure, Typology Analysis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15년 유엔 총회를 통해 채택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주체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공적 목표를 제시하는 글로벌 실행 프레임워크이다. 2030년까지의 이행 기한이 반환점을 지난 현재, SDGs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그 구조를 개선하려는 요구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은 자원의 보유자며 SDGs의 주요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SDGs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을 높이고, 보고 내용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적 평가와 피드백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럽연합은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¹⁾를 통해 2024년부터 SDGs 공시 항목을 강화하고 있으며,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²⁾ 기반의 글로벌 공시 기준에 SDGs 관련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국내 역시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SDGs 관련 보고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이 SDGs를 수용하는 방식과 실행 수준을 외부에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단순히 SDGs 목표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동의 실행 구조와 목표 간 관계

1) 유럽연합은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통해 ESG 공시를 기업 재무보고의 핵심 영역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범위와 강제성을 확대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22)

2) 국제회계기준(IFRS)은 회계투명성과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최근에는 ISSB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과의 통합이 추진하였다. (IFRS Foundation, 2022)

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SDGs 보고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다. 목표 항목만 나열하거나 로고만 제시하는 등 설명 수준에서 기업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SDGs의 통합성, 보편성, 성과지향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보고서 구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편차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럽 대기업 보고서에서 SDGs 항목의 언급은 일반화되었지만 활동 구성 방식은 기업마다 달라 비교 분석이 어렵다고 하였고(Rosati and Faria, 2019), SDGs 활동 보고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활동 구조나 이행 수준의 판단이 어렵다고 분석하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이러한 구조적 편차는 단순히 보고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외부 기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SDGs 목표와의 연결 방식이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보고 구조가 전략적으로 외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구조, 설명 방식, 실행 기반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SDGs가 다자 간 협업과 비교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 구조에서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협력 기반이 약화되고 SDGs의 통합성 및 성과지향성이라는 핵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본 연구는 SDGs 활동이 단순히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기업의 경영 전략에 통합되어 이상적 구조로 작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활동과 목표 간 연결의 적합성, 설명 정보의 구체성, 실행 기반의 유무를 구조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SDGs 보고의 오류를 유형별 구조 차이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요구로서의 SDGs를 기업의 전략 목표와 실행 체계에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환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2023년 공시된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국내 SDGs 관련 활동 사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분석 가능한 자료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방식과 설명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SDGs 보고의 대표적 유형을 도출한다. 셋째, 유형별 보고 구조의 특성과 반복되는 서술 패턴을 분석하여, 기업 보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경향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넷째, 유형 간 구조적 차이를 바탕으로 SDGs 보고의 비교 가능성, 해석 가능성,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1.2 연구 방법 및 연구 모델

본 연구는 국내 민간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하여, 기업이 SDGs 활동을 단순히 관행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혹은 실행 기반과 전략성을 갖춘 구조로 보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이하 KRX)에 공시된 161개 상장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이 중 SDGs 세부목표와 이에 대응하는 실행 활동이 본문과 부록에 함께 명시된 30개 기업의 보고서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보고서에서 총 880건의 활동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분석은 활동과 목표 간 연결 방식과 설명 구조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활동 유형은 각 활동이 SDGs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연결의 타당성과 설명 구체성, 실행 기반의 유무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11, 12, 21, 22, 30)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 분류는 SDGs 목표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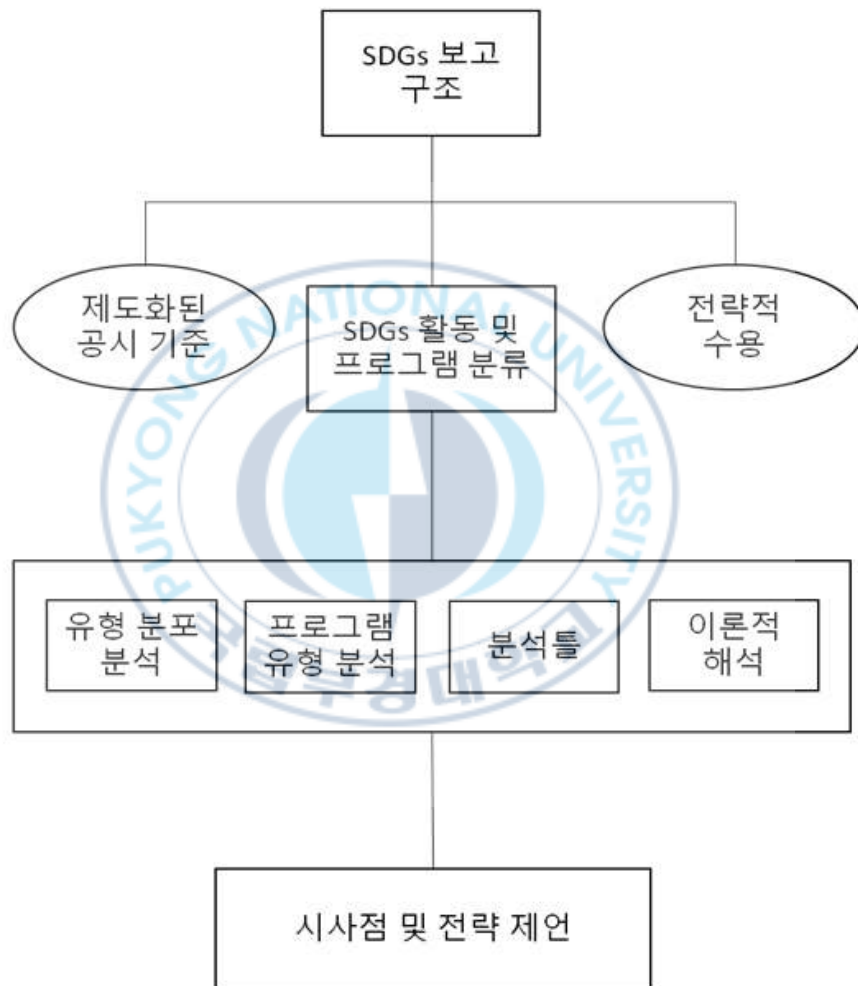
의 연결 관계의 적합성과 활동 설명의 구조적 완성도를 함께 고려한 분석 기준에 기반하며, 설명 충실도 및 정렬 수준 개념과 전략, 상징적 수용 개념 등을 분류 기준으로 반영하였다(Bose and Khan, 2022; Rodenburg et al., 2022; Silva, 2021).

정량 분석에서는 유형별 활동 수와 특성을 파악하고, 각 활동을 목적과 실행 방식에 따라 지원형, 관리형, 보호형, 역량강화형 네 가지 프로그램 유형으로 보조 분류한 뒤 교차 분석하여 활동 유형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정성 분석에서는 각 유형별 대표 기업 사례를 선정하여 보고서에 기반한 서술 방식, 목표와의 연결 타당성, 수혜자 명시, 성과 정보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정량적 분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보고 구조의 질적 특성과 수용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해 네 가지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기업시민론은 기업의 SDGs 수용이 윤리적 책임과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보고 내용의 진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평가하는 해석 기준으로 활용된다. 경영전략론은 SDGs가 기업 내부의 전략과 자원 배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동의 전략성 및 자발적 수용 여부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 제도주의 및 전략적 수용이론은 기업이 외부의 규범, 기준, 평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SDGs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설명한다. 전략적 사회공헌론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단순한 명분이 아닌 실제 경영 전략과 통합된 구조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SDGs 보고의 실행 기반과 성과 중심성을 판단하는 해석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성한 연구모델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본 모델은 SDGs 활동의 연결 적합성과 설명 수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 간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여 SDGs 보고 구조를 평가하며, SDGs

보고의 구조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모델

1.3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국내 민간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기술된 SDGs 활동이 실제로 SDGs 목표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보고가 SDGs의 목적과 취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방식에 따라 활동을 유형화하고, 보고 구조의 특성과 전략적 의미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SDGs 활동은 보고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은 어떠한 구조로 나타나는가?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은 어떠한 구조로 나타내며, 이러한 연결 방식은 기업 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SDGs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은 어떤 기준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으며, 유형별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결의 타당성과 설명 수준을 기준으로 활동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가. 셋째, 유형별 보고 구조는 어떤 전략적 해석과 가치를 지니며, 이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기업시민론, 경영전략론, 제도주의 및 전략적 수용이론, 전략적 사회공헌론의 관점에서 유형별 보고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넷째, 보고서의 형식적 구성 차이는 활동 간 비교 가능성과 해석의 일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술 위치, 목표 수준, 설명 방식 등의 구조적 차이는 정책적 피드백과 이해관계자 소통에 어떠한 제약을 야기하는가. 다섯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고의 구조적 오류는 어떤 전략 과제로 정리될 수 있는가? 유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구조적 오류들을 바탕으로, SDGs 보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제5장에서 제안한다.

제2장 SDGs에 대한 개념과 형성 배경

2.1 지속가능발전 개념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은 인류의 생존과 환경 보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DDT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발하며, 환경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SDGs 이전까지의 지속가능발전의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1> SDGs 이전까지의 지속 가능 개발 흐름

연도	사건 / 회의명	주요 내용 및 성과	주체
1962	침묵의 봄	DDT와 생태계 파괴 문제 공론화, 환경운동의 촉발	레이첼 카슨
1972	성장의 한계	자원고갈, 인구 과잉 등 인류 생존의 위기 제시	로마클럽
	UN 인간 환경회의 (UNCHE)	인간환경선언, UNEP 설립, 세계 환경의 날 제정	UN
1987	브룬란트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개념 최초 정의	WCED
1992	유엔 환경 개발 회의 (UNCED, 리우회의)	리우선언, Agenda 21, 환경 3대 협약 채택	UN
1992~199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설치	Agenda 21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ECOCOC / UN
2000	새 천 년 개발 목표 (MDGs) 채택	빈곤, 교육, 보건 등 8대 목표 설정	UN 총회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선언 및 이행계획 채택	UN / 참가국 정상
2012	리우+20 회의 개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채택, SDGs 수립 합의	UN / UNCSD

자료 : 장재현(2012), 김효정(2022), 한상범 외(2021), 외교부(2022) 등. 저자 재구성

1972년, 과학자, 교육자,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통해 인류의 경제성장이 환경오염, 인구 증가, 공업화, 식량 감소, 자원 고갈이라는 다섯 가지 문제로 인해 정체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UN은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³⁾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 UNEP)의 설립을 합의하였다. 인간환경선언은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7가지 행동 지침과 26개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해 12월 UNEP가 공식 출범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정의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설명하며,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한상범·권세훈·임상균, 2021)

이후 1992년 리우 회의로 알려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⁴⁾’에서는 ‘리우선언’과 행동계획인 Agenda 21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협약(1994), 생물다양성협약(1993), 사막화방지협약(1996) 등 유엔의 3대 환경협약이 함께 체결되며, 지속가능

3)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CHE는 환경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격상시킨 최초의 유엔 회의이다. (UNEP, 1972)

4) UNCED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Agenda 21을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 (UNCED, 1992)

발전이 국제협약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리우선언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ESSD)⁵⁾을 위한 27개 원칙을 담고 있으며, Agenda 21은 사회경제, 자원보존, 이행강화 등 4개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환경부, 2001).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제도적 기반은 UNCED 이후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에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를 통해 강화되었다. UNCSD는 ‘Agenda 21’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글로벌 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0년 9월, 제55차 UN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채택하였다. MDGs는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보장, 성평등 증진, 모성보건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질병 퇴치, 환경지속성 확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8개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 MDGs는 개발도상국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첫 번째 공동 개발 아젠다로서,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정치적 의지를 집결하는 데 기여하였다(김효정, 2022). 그러나 MDGs는 기후변화, 인권, 평화 등 핵심 글로벌 의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선진국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국가별 이행성과의 종합적 평가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박주현, 2015).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가 개최되어, UNCED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실행계획을 담은

5) ESSD는 리우회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원칙으로, 환경적 지속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개발을 지향한다. (UNCED, 1992)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환경 보호와 경제, 사회 발전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다자 협력을 강조하였다(외교부, 2002).

2012년 개최된 ‘리우+20 회의(UNCSD)’에서는 MDGs의 후속체계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에 합의하였다. 회의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를 결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부각되었는데, 선진국은 녹색경제 전환을 촉구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⁶⁾’ 원칙을 강조하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요구하였다(장재현, 2012).

2.2 SDGs의 등장과 구조

SDGs는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MDGs의 종료에 따라 마련된 후속 개발 아젠다로,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SDGs는 기존의 경제 중심 개발 논의를 넘어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며, 특히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실천 체계로 등장하였다. 이 체계는 2012년 리우+20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다자 협력 기반의 첫 번째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로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 CBDR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원칙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하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 차이를 고려해 차등적 부담을 인정한 개념이다. (UNCED, 1992)

SDGs는 총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목표는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단일한 통합체계를 형성하며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목표는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 증진, 양질의 교육 보장, 성평등 실현, 깨끗한 물과 위생, 청정에너지 보급,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 산업·혁신·기반시설 구축, 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호,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조성,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매우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각 목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숫자형 목표와 정책적 방향성을 담은 알파벳형 목표로 구성되며, 이는 SDGs가 단순한 선언적 의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과 측정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SDGs의 구조는 목표 자체의 설정을 넘어,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목표는 그 성격에 따라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존이라는 세 가지 개발 축으로 구분된다. 사회 발전 영역에는 빈곤, 기아, 보건,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SDG 1~6)이 포함되며, 경제 성장 영역은 양질의 일자리, 산업·혁신·기반시설, 도시 개발(SDG 8~11) 등을 포함한다. 환경 보존은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생태계 보전(SDG 7, 12~15)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SDG 16과 17은 제도적 기반과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SDGs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보편성, 통합성, 성과지향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운다. 그 중 성과지향성은 목표 간의 연계성과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각 주체가 수행한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기반 확보와 활동의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포한다. 특히 SDG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은 SDGs 전체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

심 조건으로서, 민간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력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체들의 실행 내용이 해석 가능하고,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SDGs는 주체 간 협력적 실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주체의 보고 내용은 상호 비교가 가능해야하며, 활동 간 비교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SDGs 체계 자체의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SDGs 보고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정책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비교 가능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보고 역시 활동과 목표 간 연결의 타당성과 해석 가능성을 갖추었을 때, SDGs의 본질을 실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식에 주목하여, 기업 보고서에 나타난 SDGs 활동이 과연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협력적 실천을 전제로 한 체계적 구성으로 기술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표 2-2> UN SDGs의 17개 목표

분야	목표	정의	세부 목표 개수
사람 (People)	Goal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7
	Goal 2. Zero Hunger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8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13
	Goal 4. Quality Education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10
	Goal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9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8
지구 환경 (Planet)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5
번영 (Prosperity)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12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8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0
지구 환경 (Planet)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1
	Goal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5
	Goal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0
	Goal 15. Life on Land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2
평화 (Peace)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2
파트너십 (Partnership)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19

자료 : 「알기쉬운 SDGs」, 2016. 저자 재구성

2.3 기업의 SDGs에 대한 네 가지 관점

본 연구는 기업의 SDGs 활동이 전략적 판단, 제도적 압력, 사회적 기대 등의 복합적 요인에 따라 수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한다. 실제 보고서에서는 SDGs가 윤리적 책임보다는 전략적 이해관계나 외부 규범에 따라 형식적으로 수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업의 수용 방식이 고정된 기준에 따라 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전략, 제도 환경, 사회적 기대가 상호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이론적 관점을 설정하였고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시민론은 공공책임에 기반한 이상적 수용을, 경영전략론은 내부 자원과 경쟁 전략에 따른 선택적 수용을 설명한다. 제도주의 및 전략적 수용이론은 외부 규범과 제도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형식적 수용을, 전략적 사회공헌론은 기업 전략과 공공성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 수용을 분석한다. 이 네 관점은 유형별 보고 구조에 나타나는 수용 태도를 해석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오류를 설명하는 데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표 2-3> 주요 이론적 관점

관점	이론적 해석	대표 문헌	한계 및 특징
기업 시민론	기업을 사회의 윤리적 책임 주체로 인식	김효정(2022)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이상주의적 접근
경영전략론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전략 목표 및 외부 압력 대응 수단으로 인식	유승엽·김은희(2007)	SDGs의 공공성을 수단화
제도주의 및 전략적 수용	보고 행위를 제도적 압력에 대한 형식적 대응으로 해석	DiMaggio and Powell(1983), Oliver(1991)	실행보다는 보고 형식에 치우친 경향
전략적 사회공헌	공공성과 전략성을 조화하는 실질적 사회공헌 추구	김성호·박성배(2010)	현실과 이상사이의 균형을 추구

자료: 김효정(2022), 유승엽·김은희(2010), 김성호·박성배(2010), DiMaggio and Powell(1983), Oliver(1991) 참고. 저자 재구성.

2.3.1 기업시민론적 관점

첫 번째 관점은 기업시민론적 관점이다. 이 접근은 기업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며, 법적, 경제적 책임을 넘어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공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주체로 이해된다. SDGs는 이러한 윤리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기업시민론은 단순한 책임 이행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윤리적 책무 수행을 요구하며, 기업의 SDGs 활동은 이에 따라 공공성과 윤리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김효정, 2022: 166).

2.3.2 경영전략론적 관점

두 번째는 경영전략론적 관점으로, 현실의 기업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접근이다. 이 관점에서 SDGs는 ESG 평가 대응, 브랜드 이미지 강화, 투자 유치 등 기업의 외부 압력과 전략적 목표 달성 수단으로 해석된다. SDGs 활동은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리스크 관리, 시장 확대, 경쟁 우위 확보와 같은 전략적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보고 역시 진정성보다는 외부 평가 회피와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한 형식적 장치로 기능한다. 기업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브랜드 차별화 및 이해관계자 대응 수단으로 활용한다(유승엽·김은희, 2010: 335).

2.3.3 제도주의 및 전략적 수용 관점

세 번째는 제도주의 및 전략적 수용 관점이다. 이 관점은 SDGs 보고가 단지 전략적 기획이나 윤리적 책임에 기반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압력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화된 결과임을 강조한다. 기업의 SDGs 보고는 정부 정책, 글로벌 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의 요구, 동종 업계의 관행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형식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는 동일한 서술 형식, 반복적인 목표와 활동 간 연결 방식, 글로벌 지표의 활용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150 - 151).

전략적 수용이론은 조직이 외부 압력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 타협, 형식적 수용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자율성과 외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능동적 대응에 주목한다. 이 관점은 SDGs가 기업의 핵

심 전략에 실제로 통합되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만 목표에 정렬된 형태로 보고서에 수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Oliver, 1991: 152 - 154).

이처럼 제도주의 및 전략적 수용 관점은 SDGs 활동이 단순한 실행 행위가 아니라, 제도적 조건과 전략적 대응 논리에 따라 구성되는 보고 구조임을 드러낸다.

2.3.4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

네 번째는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이다. 이 관점은 전통적인 사회공헌활동의 도덕적 가치와 기업의 경영전략 사이의 현실적 필요를 조화시키려는 절충형 모델로, SDGs와 가장 밀접하게 호응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제시된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여를 추구하면서도 자사의 지속가능성과 정체성을 함께 고려하며, 활동은 단순 기부를 넘어 기업의 핵심 역량과 연계된 실행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영 전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한다(김성호·박성배, 2015: 13).

전략적 사회공헌이 이상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사회적 가치가 정합성을 갖춘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 작성 및 SDGs 활동의 기술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상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SDGs 활동이 단순한 형식적 기술이나 외부 평가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략과 공공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실행 기반의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을 중심으로, 기업의 SDGs 보고 구조의 현황과 내재된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정리

기존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SDGs 수용과 보고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세 가지 주요 흐름으로 정리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SDGs가 지속가능보고서에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형식적으로 분석한 접근이다. 이러한 연구는 보고서의 작성 위치, 목표 표기 방식, 항목 배열 등 기술 형식에 주목하며, 기업 간 표현 방식과 내용 수준의 차이를 진단하였다. 동일한 SDG 목표를 기술하더라도 기업마다 표현과 해석이 달라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Rosati and Faria, 2019: 1312 - 1326). 이러한 연구들은 보고서 구조의 기초 분석을 제공하였지만, 활동과 목표 간 연결의 구조적 타당성이나 보고 방식의 유형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 흐름은 기업의 SDGs 수용을 전략적 혹은 상징적 수단으로 해석한 비판적 접근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이 SDGs를 공공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ESG 대응, 브랜드 이미지 관리, 투자 유치 등 전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들이 형식적으로는 SDGs의 공공성과 협력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보고 내용은 구체성과 실행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된다(Bebbington and Unerman, 2018: 3). 국내 연구에서도 기업의 SDGs 수용이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략 수준에서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되었다(김효정, 2022).

세 번째 흐름은 SDGs의 이행 구조를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다. 이들은 SDGs를 글로벌 공공재로 간주하고, 국가, 민간, 시민사회 간의 협력 구조와 정책 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SDGs의 실행 가능성은 국제 거버넌스 체계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렬 수준에 달려 있

으며, 다자 협력과 책임 분담 메커니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Fukuda-Parr and McNeill, 2019: 5 - 15). 이 흐름은 SDGs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책임을 제도적 틀 안에서 분담하고, 공동 목표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존 연구들은 보고의 형식성, 전략적 도구화, 제도적 맥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SDGs 수용을 분석해왔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개별 활동과 SDGs 목표 간 연결 구조를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실증적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활동의 설명 수준, 실행 기반, 수혜자 명시 여부, 성과 제시 등 구조적 요소를 기준으로 보고 구조를 체계화한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업의 SDGs 활동이 보고서 내에서 SDGs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결 적합성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유형화하였다. 연결 적합성이란 단순히 목표를 표기했는지가 아니라, 활동의 내용이 해당 목표의 해결 과제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활동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례를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보고 구조가 어떤 관점과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SDGs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 만큼, 보고서 간 비교 가능하고 해석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기술 여부를 넘어서, SDGs 보고의 구조적 일관성과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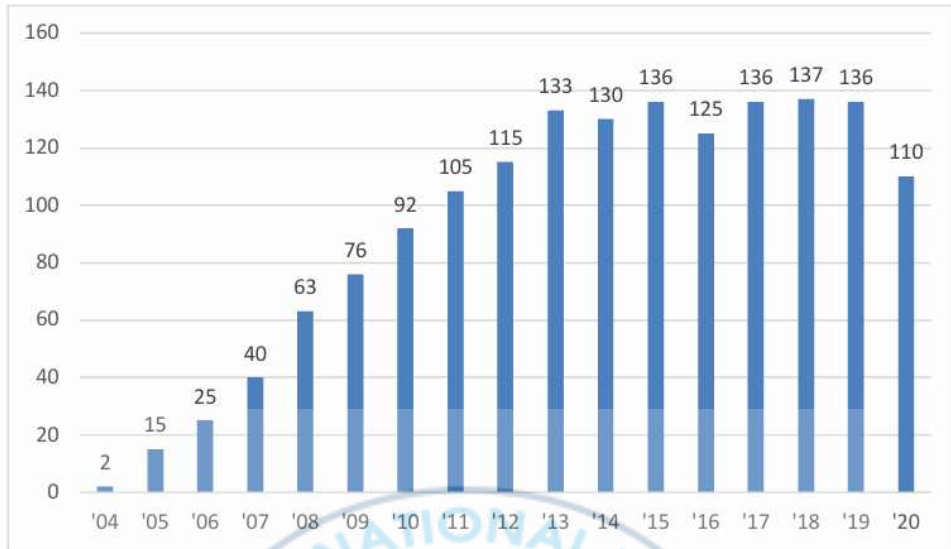
제3장 기업 SDGs의 현황과 특성

3.1 기업 SDGs의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발간하는 국내 기업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2년 한국바스프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2003년 교보생명,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보고를 시작하면서 보고서 발간은 점차 일반화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국내 약 110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그림 3-1>과 같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 기관, 공공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간되고 있으며, 그 형식과 내용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안경주, 2023).

이러한 변화는 SDGs 수용의 확대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제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SG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에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SDGs를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행 가능한 지표로 활용하려는 보고 구조 정비가 필요하다(신지영, 2022, 재인용)⁷⁾.

7) 안경주.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IT 기업의 특성 분석」.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



<그림 3-1> 지속가능 보고서 추세

자료 : 한국표준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지영, 2022, 『지금 당장 ESG』 재인용

2023년 기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중 161개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중 145개 기업(약 90%)은 보고서 내에 SDGs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활동은 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적 공급망 관리, 인권·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은 SDG 13,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은 SDG 12, 지역사회 지원은 SDG 11 등과 연결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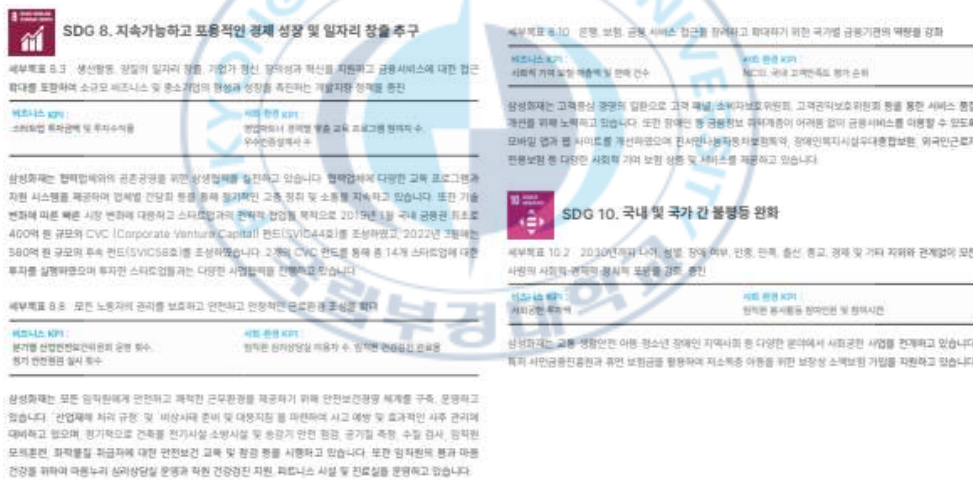
2023년 한국거래소(KRX)에 공시된 161개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 내 SDGs 기술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지속가능보고서 SDGs 기술 방식 유형

지속가능보고서 유형	건 수
본문과 부록에 제시, 세부목표 있음	32 건
본문과 부록에 제시, 세부목표 없음	52 건
본문에 제시, 세부목표 있음	7 건
본문에 제시, 세부목표 없음	50 건
SDGs 내용 없음	20 건
총합계	161 건

자료 : 한국 거래소(Korea Exchange, KRX) 2023 지속가능보고서 참고. 저자 구성

첫째, <그림 3-2>와 같이 본문과 부록 모두에 SDGs와 세부목표를 함께 제시한 보고서로, 총 32건(19.9%)이 해당된다.



<그림 3-2> 본문과 부록에 세부목표와 함께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 출처 : 2023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지속가능 보고서, 부록

둘째, <그림 3-3>과 같이 본문과 부록에 SDGs를 기술하되 세부목표는 포함하지 않은 보고서로, 52건(32.3%)이다.

UN SDGs	상설연기 활동	보고 페이지	UN SDGs	상설연기 활동	보고 페이지
Goal 1. 빈곤 퇴치	비대면 근무참여 및 자선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p.76-78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민재 양성 및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정한 임차료 증가 보상 체계 운영	p.56-66
Goal 3. 건강과 웰빙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임직원 및 자녀 대상 3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모성보호 프로그램(육아휴직, 무유유유 시설 등)	p.51	Goal 9.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국내 최초 고압성 서버를 연도제 채택(FCRGA) 양산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p.115-116
Goal 4. 양질의 교육	삼성 평년 SW 아카데미 주니어 SW 아카데미	p.74-75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법규대비 평균 30% 미만 준수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지원	p.42, p.89-91
Goal 5. 성평등	남녀 임금균여 보장 여성 근무 비율 증가	p.65-66	Goal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2022년 폐기물 재활용률 94% 달성 일회용품 저감 특별대책반 운영 수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 제로 불려되낸 등급 인증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p.38-40
Goal 6. 깨끗한 물과 위생	2022년 물수 재이용률 36.1% 달성 2030년까지 물수 재이용률 36.7% 달성 노획	p.41	Goal 13. 기후변화 대응	업계 최초 탄소 발자국 인증을 통한 차국적 기후변화 대응	p.47
Goal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일관 운영 예산 증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노획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p.35	Goal 15. 육상생태계 보호	민원 및 생태관광자문 소견 반영 생태복원 우수공로실시 우수 기업	p.44, p.77
			Goal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구축	독실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투명성 강화 준법감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반법 리스크 관리	p.97, p.106

<그림 3-3> 본문과 부록에 세부목표 없이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
출처 : 2023 삼성전기의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셋째, <그림 3-4>와 같이 본문에만 SDGs를 언급하고 세부목표는 생략한 보고서로, 50건(31.1%)이 포함된다.

순위	이슈명	UN SDGs 목표 유형	리스크요인	상생융합시대 대응 전략	보고페이지	
1	기후변화 대응	13	-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ESG, 탄소 등) - 시장경쟁력 강화 - 외부 이해관계자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전략 수립 - 순채	-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내 소자출력 확대 및 저탄소형선타 운영 - Scope 3 저탄소 부품 제조, 중국 기자재 산출 -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개발 및 내부화할 예정 - 생활다양성 보호활동	50-53	
2	사람살 양질의 보건 관리	3, 10	- 중대형차별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책임, 법적 규제 강화 - 사회적 중대형에 따른 활동을 통한 기업 신뢰 강화 필요	- 인접 차별대응을 위한 다중 노사 합동 정기연차 보건 점검 실시 - 중점소형 인공위성고민형형식사로 산업에서 안전준공 추진해 지원 - AI 기반 스마트노사 관리 시스템 고도화 - 비영리단체에 구축 등 비영리지원사업 실시	69-76	
3	탄소저감 기술개발	7, 9	-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친환경 조달로 구매 수요 증가 - 사업장 경쟁력 확보 및 고객만족 강화 필요	- 고효율 저탄소 생산 공정 도입 - 최적 고효율관리 - 온실가스도 사용량 절감	54-63	
4	디지털 전환 추진	4, 9	- 디지털 전환 기술 적극 도입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 필요	- 스마트 팩토리 추진 - 인력 배치 시뮬레이션 - AI 기반 품질 관리 - 플랫폼 구축	무도면역, 3D 공작도(제작도) 및 디지털 - 품질업 통합 플랫폼(서비스) 도입 - 사무업무 자동화 도입	35-41
5	차세대 무인소자 개발 추진	9	- 차세대 인제이 프로젝트 개발로 구매 수요 증가 - 개발 기간 단축 필요 - 대기업 프로젝트 관리 강화	- NAC(남미)에 진출하며 - 엘레트로닉스(전자) 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리퍼프)을 통한 차세대 개발 - 탄소포장 시스템 개발	44-45	
6	직업가능한 공급망 관리	8	- 친환경 기업에 대한 수요 증가 - 친환경 조달정책 확대 필요	- 친환경 기업에 대해 - 친환경 제품 지원	- 온실가스 상생 금융 지원 - 공급망 ESG 평가 및 관리 강화	86-93
7	신재생 에너지 확대	7	-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사업 내 경쟁력 제고 필요 - 친환경 부품관리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 필요	- 자생전력 생산(태양광) 도입 - 자생전력 생산 규모 - 광역(광산) 태양광 개발	46-47	
8	ESG 규제 대응	13	- ESG 부분별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 - ESG 경영 시스템 점검 및 강화 필요	-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K-ESG에 대응 강화 - ESG KPI 도입	-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국제) 동향 파악 - 배출권 거래 제도 분석 및 대응 - ESG 경영 로드맵 수립	30, 43, 54-61
9	조달혁신 강화	9	- 혁신과 조달혁신을 위한 수요 증가 - 조달혁신 추진 필요	- 상주-고객대응 1인 1인 MDC 센터 - 신기술 접목 지원 - 스마트 구매 시스템 도입	99-100	

<그림 3-4> 본문에 세부목표 없이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 출처 : 2023 삼성중공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본문

넷째, <그림 3-5>와 같이 본문에 SDGs와 세부목표를 모두 기술하였으나 부록에는 포함하지 않은 보고서는 7건(4.3%)이다.

UN SDGs 목표	주요 활동	Key Performance
13 기후행동	1.5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수립 2.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수립	2022년 기후변화 대응 실적 3,230만 톤
3 건강과 웰빙	3.4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및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3.9 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에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감소	국내 사업장 연평균 질병 발생률(2021년 5년간 '중대' (중요성) 기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4.4 청년 인턴십 확대, 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인턴십 확대 4.5 교육에서의 성 격차 해소 및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제공	10번째 '미래노동서관 설립 (2023년)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5.1 여성과 소년에 대한 포용적 리더십 확대 5.5 정치, 경제, 교육 부문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기회 보장	가속진행 중인 1년간 유지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7.1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7.3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1,500억 원 녹색채권 발행
13 기후행동	8.2 시간, 디지털, 기술혁신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성 향상 8.3 중소기업 성장 지원 8.6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동인정지 4.4년 연속 우수 (2021년 부문 1위)

<그림 3-5> 본문에 세부목표와 함께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 출처 : 2023 (주)한화의 지속가능보고서, 본문

다섯째, SDGs 관련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보고서는 20건(12.4%)이다. 이처럼 기술 위치와 세부목표의 포함 여부에 따라 보고 구조는 명확하게 분화되며, 이는 기업이 SDGs를 수용하는 방식과 보고 전략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 표기 여부를 넘어 활동 설명의 구체성이나 실행 기반의 유무에 따라 보고서 간 해석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고 격차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기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본문과 부록에 SDGs와 세부목표를 함께 기술한 보고서 32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은 동일한 지속가능보고서를 공동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최종 분석 표본은 총 30건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보고 방식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 수용 태도, 실행 기반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이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을 해석하여 기업의 SDGs 보고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2 SDGs의 구조 및 특징

SDGs는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실행 체계로 설계되었다. 총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 230여 개의 지표로 구성된 SDGs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실행,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SDGs가 단일 목표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실행을 위한 전략 설계와 지속가능성 지표의 체계적 구성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개발 아젠다와 구별된다.

SDGs는 각 목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구조를 전제

로 한다. 하나의 과제가 복수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 목표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복합적 효과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활동은 에너지 전환, 산업혁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활동을 기술할 때 목표 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설명 방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SDGs는 실행 결과를 단순히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세부목표 및 지표 단위로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참여 주체의 책임성과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는 활동을 계획, 실행, 보고하는 과정에서 목표별로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활동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 구조가 요구된다.

SDG 17에서 명시되듯, SDGs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민간기업은 자원의 보유자이자 실행의 주체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SDGs 활동은 단순한 사회공헌 항목이 아니라, 조직의 전략,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공공성과 연계되는 구조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파트너십 구조,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의 요소는 기업이 SDGs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진정성과 구조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SDGs 보고는 활동의 존재 여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이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실행 기반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기술 방식은 기업이 SDGs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그 실행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로 기능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SDGs의 구조와 특성을 바탕으로, 기업 보고서가 요구받는 기술 구조의 개념적 요건을 정리하고자 하며, 다음 장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 기준과 유형화를 제시한다.

3.3 해외 기업의 SDGs 수용 사례

SDGs는 모든 국가와 주체가 공동으로 이행해야 할 국제적 과제로 설정되었지만, 기업의 보고 방식과 수용 수준은 각국의 제도 환경과 정책적 기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선도 기업들은 SDGs를 단순한 공시 항목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략 체계에 통합된 실행 구조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SDGs 보고가 전략적 실행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조적 요건을 보여준다.

독일의 Siemens는 지속가능보고서에서 SDG 7(에너지 접근성), SDG 9(산업·혁신·인프라) 등의 목표에 대응하는 활동을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각 활동에 대해 세부 내용, 수혜 대상, 실행 성과를 정량적 지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Siemens는 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14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했다고 보고하며, 그 활동의 정책 맥락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Siemens AG, 2022: 62 - 64).

네덜란드의 Unilever 역시 SDGs 목표별로 활동을 구조화하고, 각 항목에 대해 이행 실적, 사회적 수혜자, 성과 지표, 향후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후행동', '생활용수 접근성 확대'와 같은 활동 항목은 목표의 정책 취지와 실행 결과 간의 구조적 연결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범주

도 소비자, 지역사회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Unilever, 2021: 26 - 33).

이러한 보고 방식은 단지 기업 내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제도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이다. 유럽연합은 CSRD를 통해 SDGs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준으로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⁸⁾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SDG Charter와 같은 실행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였고, 독일은 국가 지속가능성 전략에 기반하여 기업 보고 기준과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기반과 사회적 요구의 정렬 구조는 기업이 SDGs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 전략적 실행 구조로 내재화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SDGs 보고가 단순한 기술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이 정책적 취지에 맞게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둘째, 활동 설명이 실행 내용 중심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자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며, 넷째, 성과가 정량적, 정성적으로 객관화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은 보고 구조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며, SDGs의 전략적 수용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Siemens AG, 2022; Unilever, 2021).

8)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CSRD 이행을 위해 EU가 채택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요소와 SDGs 관련 정보의 통합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23)

3.4 SDGs 이행의 현실적 격차와 기업 보고의 한계

SDGs는 모든 주체의 공동 책임과 협력을 전제로 설계된 국제적 개발 아젠다임에도, 국내 민간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서 나타나는 SDGs 보고는 이러한 설계 취지와 괴리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자발적 공시 형태로 작성되고 있으며, SDGs 목표 번호를 단순히 기술하거나, 일부 활동에 로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기술 수준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세부 목표 단위에서 활동과의 연결 구조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거나, 정량적 성과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기술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SDGs 이행을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사회적 비교나 정책적 피드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상이다.

이러한 한계는 보고서의 기술 방식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 결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동일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기술 위치, 표현 방식, 연결 설명의 유무에 따라 SDGs 목표와의 연결 수준이 달라지고, 기업 간 보고 형식의 차이로 인해 내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SDGs가 전제하는 통합성, 비교 가능성, 실행 기반 협력이라는 원칙과 충돌하며, 보고서가 실질적 실행 수단이 아닌 상징적 표현이나 외부 인증 대응 수단으로 소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목표와 활동 간의 구조적 연결 기준, 설명 수준의 정형화, 성과 제시의 요구 수준, 이해관계자 정보의 명시 여부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SDGs 보고는 실질적 실행력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SDGs 보고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홍보 수단을 넘어서, 정책적 평가와 다자 협력 기반을 지원하는 실행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방식의 구조화와 평가 체계

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3.5 기업 SDGs 보고 분석을 위한 외부 기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기술된 SDGs 활동은 공신력 있는 외부기준을 참고하고 있음에도 연결 방식, 설명 수준, 성과 제시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며, 보고가 실질적인 평가 수단이나 정책 피드백 도구로 기능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분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SDG Compass, GRI Standards, K-ESG 가이드라인 등 대표적인 외부 기준들이 기업 SDGs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들이 본 연구와 어떤 항목에서 접점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들 기준은 각각 상이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SDGs 보고의 연결 타당성, 설명 수준, 성과 기반 기술의 평가에 참조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대한 외부 기준

외부기준	기본 성격 및 기능	강점	한계
SDG Compass	SDGs 목표와 활동 간 연계를 식별하는 실행 지침	목표별 기여 가능한 활동 유형과 연결 방식 제시	연결의 개념적 타당성 및 기술 정합성에 대한 기준 부족
GRI Standards	국제적 지속가능보고서 기준	설명 수준 제고, GRI 103 시리즈는 구조화된 보고 실무 가이드 제공	SDGs 목표 간 구체적인 연결 방식이나 기술 형식에 대한 명시적 기준 없음
K-ESG 가이드라인	국내 ESG 정보 공시 및 자가 진단 지원 기준	성과 정보의 정량화 가능	전략적 정렬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해석적 판단이 어려움

자료 : SDG Compass(2015), GRI(2016), 환경부(2022), 저자 재구성.

SDG Compass는 기업이 활동과 SDGs 목표 간의 연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행 지침으로, 전략적 수용과 목표 매칭을 위한 5단계 절차를 제시한다. 목표별로 기여 가능한 활동 유형과 연결 방식이 함께 제시되어, 연결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GRI Standards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기업이 활동의 목적, 정책 맥락, 성과 정보를 명확히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GRI 103 시리즈는 설명 수준과 보고의 구조화를 위한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한다. K-ESG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의 ESG 정보 공시와 자가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량 지표 중심의 기술 방식과 실행 성과의 수치화 요구를 포함한다.

이들 외부 기준은 기업 보고의 특정 측면을 보완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SDGs 보고의 구조적 완성도와 실행 기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SDG Compass는 목표와의 연결을 유도하지만 연결의 개념적 타당성이나 기술의 정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부족하다. GRI는 설명 수준을 높이는 데 유용하지만, SDGs 목표 간의 구체적 연결 방식이나 기술 형식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K-ESG는 성과 기술의 정량화에는 기여하나, 활동 맥락이나 전략적 정렬 여부에 대한 해석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 기준 모두 SDGs 활동이 보고서 내에서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술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배열과 보고 형식의 일관성 확보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진다.

따라서 외부 기준은 각각의 기능적 강점을 가지면서도, SDGs 보고의 연결 타당성, 설명 밀도, 실행 기반, 보고 형식 등 다층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제4장 지속가능보고서 분석과 SDGs 활동 유형화 비교

4.1 분석 대상 및 자료 구성

본 장은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하여, SDGs 활동이 보고서 내에서 어떠한 구조로 기술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SDGs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SDGs 관련 선행연구들은 활동의 존재 여부나 목표의 단순 열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SDGs 활동이 보고서 내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구성되는지, 활동과 목표 간 연결이 실제로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고 방식이 일관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2023년 KRX에 공시된 지속가능보고서 중, SDGs 세부목표와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기술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SDGs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방식과 설명 수준을 구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충족한 사례들이다.

본 연구는 보고서에 기술된 SDGs 활동의 구조적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방식과 설명 수준을 기준으로 총 다섯 가지 활동 유형(11, 12, 21, 22, 30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유형은 활동이 목표와의 연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활동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 사례 분석을 위해 대표 기업을 1곳씩 선정하였다. 대표 기업은 유형 내 활동의 수와 비중, SDGs 목표와의 연결 방식, 보고서의 구성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사례로 구성되었다. 유형별 대표

기업, 산업군, 채택한 활동 및 관련 세부목표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 유형별 대표 기업 정보

기업명	산업	활동 유형	채택 활동	연계 SDGs 활동
현대 모비스	제조업	11유형	채용 연계형 SW 아카데미 및 계약학과 운영	SDGs 4.4
			수질오염물질 관리	SDGs 6.3
현대 일렉트릭	제조업	12유형	자율직무교육제도를 통한 직무전문가 육성	SDGs 4.4
			시험 공정 냉각수 재이용 설비 구축	SDGs 6.6
포스코퓨처엠	제조업	21유형	푸드 충전소 운영	SDGs 1.5
			내화물 및 부산물 재활용, 폐기물 저감	SDGs 13.3
깨끗한 나라	제조업	22유형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SDGs 3.4
			비상사태관리규정 정비 및 화학사고 대응 교육	SDGs 12.2 외 다수
힐라홀딩스	도매 및 소매업	30유형	브랜드 포지셔닝, 연구개발, '품질경영' 등	SDGs 8.3

자료 : 2022/2023 현대모비스·현대일렉트릭·포스코 퓨처엠·깨끗한 나라·힐라홀딩스의 지속가능보고서, 부록의 SDGs 활동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및 전동화 시스템 중심의 부품 생산을 수행하는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제조 대기업으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핵심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전문 대기업이며, 스마트 전력설비 구축과 전력 효율화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소재 및 고기능 산업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그룹 계열의 대기업으로, 국내외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깨끗한 나라는 위생용품 및 생활용지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지 제조 중견기업으로, 생활용품과 산업용 지류를 중

심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휠라홀딩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보유한 도매 및 소매업 기반의 대기업으로, 의류 및 골프 용품 등 브랜드 제품 기획 및 유통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4.2 SDGs 활동 유형별 분류 기준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SDGs가 언급되었다고 해서, 해당 활동이 SDGs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며 전략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순히 로고를 삽입하거나 목표를 명시한 것만으로는 활동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활동이 어떤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설명이 구체적이고 실행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기업의 SDGs 보고가 전략적·구조적으로 얼마나 충실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해 활동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SDGs 목표와의 연결 적합성, 실행과의 연계 정도, 보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유형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11유형은 기업이 보고한 활동이 SDGs 목표와 실질적으로 연관된 경우로, 본 연구는 이를 Bose & Khan(2022)의 ‘일치성(Alignment)’ 개념을 통해 해석하였다. 이 개념은 SDGs 정보가 기업 전략과 실행에 의미 있게 통합될 때 보고가 실질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둘째, 12, 21, 30유형은 기업이 SDGs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는지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Silva(2021)의 보고서 분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상징적 수용(Symbolic adoption)’, ‘목표 - 활동 간 부조화(Misalignment)’, ‘피상적 공개(Superficial disclosure)’라는 개념으

로 해석하였다. 이 가운데 misalignment는 논문 내에서 직접 제시된 개념으로, SDGs 표현과 실제 실행 간의 괴리를 설명한다. 반면 symbolic adoption과 superficial disclosure는 명시적으로 사용된 표현은 아니지만, 기업이 전략이나 실행과 무관하게 SDGs를 외형적으로만 활용하거나, 활동의 내용 없이 단순히 명시에 그치는 보고 관행을 지적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재구성한 개념이다. 이러한 해석은 SDGs가 실행 근거 없이 선언적 언어나 외형적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적 경향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셋째, 22유형은 기업이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SDGs 목표를 기술하거나, 실행과 무관한 목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를 Rodenburg et al.(2022)의 ‘상징적 정당성(Symbolic legitimacy)’ 개념에 따라 해석하였다. 이 개념은 지속가능성 언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되 실제 조직 변화나 이행은 수반되지 않는 보고 관행을 설명하며, 활동과 목표 간의 의미 불일치나 구조적 괴리를 발생시키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22유형이 단순히 형식적인 수용을 넘어, SDGs 목표와의 연결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례임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보고서 내 SDGs 활동이 단지 언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적합성과 수용 방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SDGs 보고 구조를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다섯 가지 유형은 다음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표 4-2> 활동 유형

유형	정의	이론적 선행 연구	대응 개념
11유형 (적합)	활동과 SDGs 목표와의 연결이 타당한 유형	Bose and Khan(2022)	Alignment (일치성)
12유형 (사후적 부착)	기업의 필요에 의한 활동에 SDGs 목표를 사후적 부착한 유형	Silva(2021)	Symbolic adoption (상징적 수용)
21유형 (과도한 연결)	활동의 영향을 과잉해석하여 잘못된 SDGs 목표와 연결한 유형	Silva(2021)	Misalignment (목표-활동 간 부조화)
22유형 (부적합)	활동과 SDGs 목표와의 연결이 본질적으로 부적합한 유형	Rodenburg et al(2022)	Symbolic legitimacy (상징적 정당성 확보)
30유형 (정보 누락)	부록에서 SDGs 활동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고서 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유형	Silva(2021)	Superficial disclosure (피상적 공개)

자료: Bose and Khan(2022), Silva(2021), Rodenburg et al(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4.3 활동의 유형 분포 및 구조적 특성 분석

본 절은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기술된 SDGs 활동을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통합하여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고 구조의 특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총 880건의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4.2절에서 SDGs 목표와 활동 간 연결 방식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11, 12, 21, 22, 30)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 분류는 활동이 SDGs 목표와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활동 자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연결의 타당성과 실행 기반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본 절에서는 활동 유형별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각 활동의 실행 목적과 기능적 특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한 것을 <표 4-3>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유형 분류는 활동이 수행하는 방식과 개입 대상의 성격에 따라 지원형, 관리형, 보호형, 역량강화형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원형은 교육, 기술, 물자, 보건 등 물리적 자원을 직접 제공하는 활동, 관리형은 에너지, 수자원, 오염물질 등 기업 운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활동, 보호형은 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비물질적 자산의 보전 활동, 역량강화형은 제도 개선, 인권 증진, 윤리경영 등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활동의 외형적 보고 구조를 넘어서, 기업이 선택한 SDGs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과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데 보조 기준으로 사용된다.

<표 4-3> 프로그램 유형 분류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교육 지원
	기술 지원
	물자 지원
	보건 지원
	상생 지원
	연구 지원
관리 프로그램	물 관리
	에너지 관리
	오염,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
보호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계 보호
역량강화 프로그램	윤리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인권 경영
	제도 및 역량 강화
	차별금지 정책

자료 : 지속가능보고서에서 SDGs 활동 사례 추출 및 유형화. 저자 구성.

SDGs 활동 유형에 대한 분포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총 880건의 활동 중 11유형이 544건(6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12 유형 127건(14.4%), 22유형 112건(12.7%), 21유형 65건(7.4%), 30유형 32건 (3.6%)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활동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유형 또한 상이하며, 이는 기업의 실행 목적과 SDGs 수용 전략에 따라 활동의 구조적 특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이 분포를 기반으로 유형별 보고 구조, 설명 방식, 실행 기반의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유형과의 연계를 통해 보고서 구조의 해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표 4-4> SDGs 활동 유형 분포

매칭 유형	지원형		관리형		보호형		역량강화형		총 건수(b)
	건 수 (a)	비 율 (a/b)	건 수 (a)	비 율 (a/b)	건 수 (a)	비 율 (a/b)	건 수 (a)	비 율 (a/b)	
11 유형	210건	38.6%	127건	23.3%	30건	5.5%	177건	32.5%	544건
12 유형	53건	41.7%	9건	7.1%	0건	0.0%	65건	51.2%	127건
21 유형	25건	38.5%	22건	33.8%	3건	4.6%	15건	23.1%	65건
22 유형	33건	29.5%	9건	8.0%	2건	1.8%	68건	60.7%	112건
30 유형	분류 불가		분류 불가		분류 불가		분류 불가		32건
총합	321건		167건		35건		325건		880건

자료: 2023년 KRX 상장기업 지속가능보고서 30건에서 SDGs 활동 사례 880건 추출 및 유형별 분류. 저자 구성

11유형은 SDGs 목표와 활동 간 연결이 적합하게 구조화된 사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SDG 6과 연결된 농촌 지역 수질 개선 활동은 정수 시스템 설치와 인력 채용 과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SDG 4와 연결된 디지털 학습 기기 지원 활동은 참여자 규모와 운영 지속성을 포함하여 설명되

고 있다. 전체 880건 중 11유형은 544건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지원형은 210건(38.6%), 관리형은 127건(23.3%), 보호형은 30건(5.5%), 역량강화형은 177건(32.5%)이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행 기반과 설명 완결성을 함께 갖춘 보고 구조로 판단된다.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이 유형은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 전략 간의 구조적 통합이 구현된 사례로 해석된다.

12유형은 기존의 내부 프로그램이나 반복적 활동에 SDGs 목표가 사후적으로 부착된 사례로 구성된다. 보고서에는 활동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나, 목표와의 연결이 활동 설계 과정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내부 인재 육성, 사내 직무 교육,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과 같은 활동이 SDG 4 또는 SDG 13과 연결되었지만, 해당 목표가 추구하는 교육 격차 해소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핵심 취지와 구조적 연계는 약한 편이다. 보고서는 활동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만, 목표 선택의 근거 또는 연결의 논리를 명시하지 않으며, 실행 주체나 성과 지표와 같은 핵심 정보가 생략된 경우가 많다. 전체 880건 중 12유형은 127건이며, 이 가운데 지원형은 53건(41.7%), 관리형 9건(7.1%), 역량강화형 65건(51.2%)으로 구성된다. 활동은 주로 내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고의 목적은 전략적 수용보다는 공시 기준 충족에 가까운 형식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보면, 활동과 목표의 구조적 통합보다는 외형적 일치에 집중된 사례에 해당하며, SDGs가 활동 설계의 전제가 아닌 후속 기술 과정에서 부착된 경우로 판단된다.

21유형은 활동의 실행과 설명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연결된 SDGs 목표가 해당 활동과 구조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과도하게 해석된 경우로 분류된다. 초등학생 대상의 에너지 절약 교육이 SDG 11과 연결되거나, 공장 내 수질 개선 활동이 SDG 14와 연결된 사례와 같이, 활동의 실

제 내용과 목표 간 개념적 일치도가 낮고 해석 기준이 자의적인 경우가 다수 포함된다. 보고서에는 활동 내용과 실행 방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연결 목표의 선정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전체 880건 중 21유형은 65건이며, 이 가운데 지원형은 25건(38.5%), 관리형 22건(33.8%), 보호형 3건(4.6%), 역량강화형 15건(23.1%)으로 분포된다. 활동의 전략적 설계와 연결 목표 간 정합성이 낮고, 보고서는 브랜드 이미지나 외부 평가 지표를 고려한 형식 중심의 대응 구조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보면, 이 유형은 활동 설계보다 외부 인식 대응에 중심을 둔 보고 전략에 해당하며, 사회적 기여와 무관한 과잉 연결 구조로 평가된다.

22유형은 활동은 수행되었으나, SDGs 목표와의 연결 방식이 설명되지 않았거나 목표와 활동 간 부적절한 연결 사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대해 SDG 7, SDG 12, SDG 13, SDG 17을 병렬적으로 기술하였으나 연결 논리를 제시하지 않거나, 교통안전 용품 기부 활동과 SDG 3.6을 연결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된 보고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 본문에는 활동 설명이 제한적으로 제시되며, 목표 번호나 아이콘만을 배치하는 형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전체 880건 중 22유형은 112건이며, 이 가운데 역량강화형 68건(60.7%), 지원형 33건(29.5%), 관리형 9건(8.0%), 보호형 2건(1.8%)으로 구성된다. 활동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연결 구조의 타당성과 설명의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고서는 SDGs를 실질적 전략이 아닌 형식적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는 외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수용 사례로 해석되며, 보고 구조가 실행 기반보다는 보고 요건 충족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30유형은 보고서에 SDGs 목표 번호나 세부목표가 기술되어 있으나, 해

당 활동의 실행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또는 부록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구조로 구성된다. 보고서에는 목표만 제시되고 활동의 실체가 설명되지 않아 연결 여부를 평가할 수 없으며, 활동 설명 항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다. SDG 번호와 활동 제목이 부록에 표 형식으로만 정리되어 있고, 본문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전체 880건 중 30유형은 32건으로 구성되며, 활동의 유형이나 프로그램 분류도 불가능한 상태다. 보고서에 기술된 SDGs가 실행 기반 없이 상징적으로 소비되는 형식주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전략적 사회공헌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실행 기반과 정합성 모두가 결여된 보고 실패 구조에 해당한다. SDGs가 실질적 실행과 무관하게 외형적 장식 요소로만 활용되는 사례로, 기업의 전략적 수용과는 거리가 있는 보고 태도로 해석된다.

유형별 분석 결과, 동일한 프로그램 유형이라도 활동의 설계 방식, 목표와의 연결 구조, 설명 방식에 따라 보고서의 신뢰성은 달라진다. 11유형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 전략이 결합되어 실행 주체와 대상, 성과까지 포함하는 설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형과 역량 강화형 활동이 다수를 차지한다. 12유형은 활동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만, SDGs와의 연결이 사후적으로 설정되어 전략적 기획 기반이 부족하며, 관리형 활동 중심의 내부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 21유형과 22유형은 활동과 설명은 존재하지만 목표와의 연결이 과도하거나 설명 없이 기술되는 경향을 보이며, 프로그램 유형도 분산적이며 보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30유형은 활동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만 나열되어 프로그램 분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며, 기업이 SDGs를 형식적 수단으로 소비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확인된 보고 구조의 경향은 보고서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네 가지 구조적 문제로 수렴된다. 이는 형식 중심의 기술 방식, 목표와 활동 간 연결의 부적절성, 성과 정보의 결여, 보고 내용의 해석 불가능성과 같은 오류 형태로 나타나며, 단일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유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오류는 SDGs 보고가 수행해야 할 정보 전달과 정책적 피드백의 기능을 제한하고, 보고서의 공공성과 전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4 유형별 대표 사례 분석

본 연구는 기업의 SDGs 활동 보고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틀을 네 가지 기준을 반영하여 설정하였고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분석의 적용 가능성과 해석의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네 가지 기준은 각각 활동과 SDGs 목표 간의 연결 타당성, 활동 설명의 구체성, 수혜 대상의 명시 여부, 성과 및 효과의 제시 여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다시 두 개의 분석 축에 따라 체계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축은 활동이 SDGs 목표와 실제로 얼마나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결 타당성’이고, 두 번째 축은 보고서 내에서 활동이 어떻게 기술되고 설명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술 구조의 정합성’이다. 이 중 연결 타당성은 활동의 성격과 선택된 목표가 의미적으로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나머지 세 항목은 보고된 활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수혜자와 성과가 명시되었는지 등을 통해 보고 내용의 충실성과 해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 기준들이다.

<표 4-5> 분석틀

축	분석기준	설명
연 결 타당성	SDGs 연결 타당성	SDGs 목표와 활동 간 관련, 적합 여부
구 조 적합성	활동 설명의 구체성	활동 목적, 주체, 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 여부
	수혜대상 명시 여부	수혜 대상이 명확 한지 여부
	성과 및 효과 제시	활동의 결과가 정량적, 정성적 측정 가능 여부

자료 : 저자 구성.

이러한 네 가지 분석 기준은 단순히 개별 활동의 정보 충실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 아니라, 기업의 SDGs 활동이 얼마나 구조적 일관성과 전략적 진정성을 갖추고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판단 기준이다. 연결 타당성은 활동과 선택된 SDGs 목표 간의 의미적 적합성을 판단하며, 동일 유형 내에서도 연결 수준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활동 설명의 구체성은 활동이 단순히 언급되는 수준을 넘어서 실행 목적, 방식, 주체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며, 수혜 대상의 명시는 활동이 공공성을 전제로 외부 이해관계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과 또는 기대효과의 제시는 단순 실행 여부를 넘어 결과나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활동이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진단한다. 이 네 항목은 보고 구조의 전략성과 실행 기반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일 뿐 아니라, 다음 장에서 제시할 구조적 오류 유형의 해석 기준으로도 확장되어 활용된다.

4.4.1. 현대모비스 사례: 11유형

현대모비스는 SDGs 목표와 기업 활동 간 연결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며, 개별 활동에 대한 설명이 본문과 부록을 통해 제시된 11유형의 대표 사례로 분류되며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SDGs	내용 목표	현대모비스 활동	보고 위치	SDGs	내용 목표	현대모비스 활동	보고 위치
1.4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계획	• 장애인 고용 확대 지원	108	8.3	생산력 향상의 증진, 산업 및 SME 성장 지원	•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애용(대우) 육성 지원 • 1사 1촌 육성을 위한 협력 운영	17 (78-81 100)
15	사회적 책임활동 지원	• 임직원 자원봉사 전개 • 공익기부, 기업 후원	100	9.0.2	중등권 관리 보장 및 불평등 감소	• 다양성과 포용(대우) 정책 제정 • 동일 직종 동일 급여 체계 적용	87
3.4	합리적인 생산 및 소비 환경	• 친환경 차량 및 친환경 부품 운영 • 모비스 이클라우드 플랫폼	101	12.4	환경물질 및 폐기물에 의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차량상 유해화학물질 관리	53
3.6	안전의 교통 사고를 감소	• 위험요인 실험 활동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이클라우드(이클) 개발	107	12.5	제품물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축 노력 이행	• 2025 폐기물 제로(Zero) 추진	58
4.4	미래 기술·과직 단계 양성 기여	• R&D 인력양성 • 채용 연계형 SW 인력양성, 청년취업 운영	99	12.6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 노력	• ESG 거버넌스 확보 및 전역 추진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통한 관련 활동 공개	22-23
4.7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인식 교육 확대	• 10개 인력개발 대학원 및 무료 배움	106	13.3	기후변화 대응 대응 및 대응 역량 확보	• 임직원 환경 교육 및 ESG 이니셔티브 교육 진행 • 2025 Net Zero 달성 추진	90 98
5.5	여성 역량 강화 및 리더 육성	• 리더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추진 및 이력 • 10개 대학원 프로그램(이클) 운영	87	15.2	혁신 및 도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관리	• 임직원 참여를 통한 장기 참여 사물 차세대 기후 • 승진도 통한 시간 참여 호 조성 참여	108
6.3	영수 제품물 확대 및 수질 개선	• 수질오염물질 관리 • 10개 대학원 프로그램(이클) 운영	54	15.5	지연사각(대우) 협력(이클) 및 협력(이클)	• 국내외 사업장별 협력(이클) 리스크 분석 • 기후수 및 조류(대우) 협력(이클) 운영	54
6.6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친환경 차량(대우) 협력(이클) 운영	54	16.5	모든 형태의 사회적 책임	• 임직원 참여를 통한 행동강령 보완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43-45
7.2	에너지 효율성 내화 성능(대우) 비율 확대	• 2024년 100% 추진	99	17.0	파트너십 활성화(이클) 추진(이클)	• 지속가능경영(이클) 운영	140
7.3	에너지 효율성, 개선	•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장 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	68				

<그림 4-1> 현대모비스의 2023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출처 : 2023 현대모비스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개별 활동 간에는 설명의 구체성이나 수혜자 명시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본 절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중심으로 활동 구조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보고한 SDGs 활동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적용하여 해당 유형의 구조적 한계 및 특성을 <표 4-6>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채용 연계형 SW 아카데미 및 계약학과 운영’ 활동으로, SDG 4.4(기술 및 직업교육 접근 확대)와의 연결을 기반으로 보고되었다. 해당 활동은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무 중심의 역량을 배양하고, 수료 이후 채용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운영 방식, 연계 경로가 구

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수료 인원 및 채용 실적 등 성과 지표가 수치 기반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활동의 대상이 기업 외부의 청년 구직자라는 점에서 공공성에서도 타당성이 높고,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동시에 구현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수질오염물질 관리’ 활동으로, SDG 6.3(수질 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과 연결하여 보고되었다. 이 활동은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부록 중심의 간결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설명은 ‘물 스트레스 분석’ 및 ‘정화 설비 운영’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혜자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고서 본문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은 제한적이며, 성과에 해당하는 수치 지표나 기대효과에 대한 정량적 서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4-6> 현대모비스의 SDGs 활동 분석

분석 기준	사례 : 채용 연계형 SW	사례 : 수질오염물질 관리
SDGs 연결 타당성	적합	적합
활동 설명 구체성	높음	낮음
수혜 대상 명시	명시	추론 가능
성과 및 효과 제시	제시	부재

자료 : 2022/2023 현대모비스의 지속가능보고서, 부록의 SDGs 활동을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4-6>의 분석들에 따라 두 활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두 사례 모두 SDGs 목표와의 연결 타당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활동 설명의 구체성, 수혜자 명시 여부, 성과 제시 수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은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 전략이 결합된 역량강화형 활동으로, 외부 수혜자에 대한 설명과 성과가 명확히 제시된 반면, 수질오염물질 관리 활동은 내부 운영을 중심으로 한 관리형 활동으로, 설명 및 성과 제시 측면에서 제한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처럼 동일한 유형(11유형) 내에

서도 활동의 설계 방식과 보고 수준에 따라 구조적 완성도는 상이하며, 개별 활동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이 SDGs 활동을 보고할 때 통일된 기준 없이 개별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기술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일 유형 내 활동 간에도 전략적 수용 정도나 사회적 기여 수준의 편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수질오염물질 관리 활동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SDG 6과 연결되지만, 실제로는 제도적 준수나 내부 관리 강화를 위한 보고 성격이 강해 제도주의적 수용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유형 분류만으로는 활동의 구조적 특성과 전략적 함의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보고 구조의 복잡성과 이질성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대일렉트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다수의 활동이 SDGs 목표와 연계되어 기술되어 있으나 활동의 구조와 실행 배경을 살펴보면 SDGs 활동이 기업 외부의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기보다는, 내부 자원 관리 또는 인사 제도와 같은 기존 활동을 SDGs와 연계하여 재구성한 형태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 보고한 SDGs 활동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적용하고 12유형의 한계 및 특성을 <표 4-7>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자율직무교육제도를 통한 직무전문가 육성’ 활동으로, SDG 4.4(기술 및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와 연결되어 보고되었다. 이 활동은 사내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운영 방식과 참여 제도 등이 중심이 된다. 해당 활동은 조직 내부 인재개발을 위한 체계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이나 수혜 대상이 외부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은 SDGs 목표와의 연결은 개념적으로는 성립하지만, 활동의 결과가 공공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사례는 ‘시험 공정 냉각수 재이용 설비 구축’ 활동으로, SDG 6.6(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 활동은 시험 공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를 재활용함으로써 용수 사용을 줄이고자 하며,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 활동이다. 해당 활동은 자원 절감과 운영비용 효율화에 기여하지만, 그 결과가 외부 사회에 직접적인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SDGs 목표를 결부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고서에는 수혜자에 대한 별도 설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활동의 영향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다.

<표 4-7> 현대일렉트릭의 SDGs 활동 분석

분석 기준	사례 : 자율직무교육제도	사례 : 냉각수 재이용 설비 구축
SDGs 연결 타당성	적합	적합
활동 설명 구체성	낮음	낮음
수혜 대상 명시	내부 인력	부재
성과 및 효과 제시	부재	제한적 기술

자료 : 2022/2023 현대일렉트릭의 지속가능보고서, 부록의 SDGs 활동을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4-7>의 분석들에 따라 두 활동을 비교하면, 두 사례 모두 SDGs 목표와의 연결 자체는 명시되어 있으나, 활동이 외부 수혜자나 사회적 성과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두 사례 모두 기업 내부 시스템과 자원 효율화 중심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s는 사후적으로 부착되어 설명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보면,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내부 정당화 및 제도적 대응에 가깝고, 제도주의적 수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11유형 사례였던 현대모비스의 채용 연계형 SW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현대모비스 사례는 청년층이라는 외부 수혜자를 대상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기반과 공공적 기획이 명확히 제시된 반면, 현대일렉트릭의 활동은 내부 대상 중심의 운영 활동을 SDGs와 연계한 것으로, 전략적 수용보다는 형식적 부착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대일렉트릭 사례는 12유형이 지닌 SDGs의 사후적 부착과 내부 중심 설계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SDGs 활동이 본래의 공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과 괴리되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이는 기업의 SDGs 보고가 단순한 연결 표시를 넘어, 실행 기반과 수혜자, 성과 정보를 포괄하는 구조적 정합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고 체

첫 번째 사례는 ‘푸드 충전소 운영’ 활동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 프로그램이다. 활동은 외형상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공공적 목적을 지니지만, 보고서에서는 이를 SDG 1.5(재난 및 빈곤 취약계층의 회복력 강화)와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활동은 실제로 빈곤 대응보다는 식생활 안정성 제공에 가까우며, SDG 2.1(영양 결핍 종식) 또는 SDG 3.8(보편적 건강 서비스 제공) 등과의 연결이 보다 적절하다. 이 사례는 활동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SDGs 목표와 미스매치한 대표적인 사례다.

두 번째 사례는 ‘내화물 및 부산물 재활용, 폐기물 저감’ 활동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내부 환경 관리 활동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SDG 13.3(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와 연결하고 있으나, 해당 목표의 핵심 요소인 인식 제고, 교육, 시민 참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활동은 자원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실질적으로는 SDG 12.5(재활용 증대)와 더 높은 정합성을 갖는다. 활동이 외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혜 대상에 대한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공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례 역시 SDGs 목표 선택이 활동의 실질 목적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 부여된 과잉 연결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8> 포스코 퓨처엠의 SDGs 활동 분석

분석 기준	사례 : 푸드 충전소 운영	사례 : 내화물 재활용
SDGs 연결 타당성	과도한 연결	과도한 연결
활동 설명 구체성	간결	낮음
수혜 대상 명시	명시	부재
성과 및 효과 제시	부재	제한적 기술

자료 : 2022/2023 포스코 퓨처엠의 지속가능보고서, 부록의 SDGs 활동을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4-8>과 같이, 두 번째 사례 역시 활동의 성격이나 실행 목적과 연결된 SDGs 목표 간의 구조적 정합성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 활동 설명은 간결한 수준에 머물며, 수혜자에 대한 언급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행 기반의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SDG 13.3(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은 교육, 시민 참여, 인식 향상 등 사회적 실행 구조를 요구하지만, 해당 활동은 단순한 자원 순환에 그쳐 그 취지와 연결성이 부족하다.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보면, 이 사례는 SDGs 목표를 실질적 지향보다는 외형적 정당성을 위한 상징적 요소로 차용한 구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포스코퓨처엠이 보고하는 SDGs 활동이 실행 기반이나 공공적 효과보다는 외형적 목표 제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목표 설정의 기준이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실행 기반 없이 외형적으로만 목표를 부여한 ‘과잉 연결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보고의 전략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국 포스코퓨처엠 사례는 21유형의 특성인 활동 자체는 실질적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외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부여된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는 SDGs 목표 설정에 있어 내부 절차와 해석 기준이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고의 정합성 저해 사례로, 5장에서 논의될 실행 기반 중심의 보고체계 개선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4.4.4. 깨끗한 나라 사례: 22유형

깨끗한나라는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내부 운영 활동과 환경안전 관리 노력을 SDGs 목표와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일부 활동에서는 활동의 실제 목적과 실행 구조가 해당 SDGs 목표의 정책 취지나 공적 과제와 무관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림 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SDGs	세부 목표	깨끗한나라의 사례
3. 건강과 웰빙	3.4 직업상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에 관한 교육을 위한 자료가 및 온라인 지원, 건강관리와 관련된 등 직원들에게 대한 교육 시행 *근로자에게 업무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일직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6 감염병의 확산 예방, 저소득 국가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3.9 유해물질의 사용, 제조, 폐기로부터 인명 피해를 예방	
4. 양질의 교육	4.4 직업, 실용성 및 평생 학습을 위한 학습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교육 및 국제적 관련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 *언어 교육 및 국제적 관련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
	4.5 교육에 대한 접근성, 양질의 교육, 직업훈련 기회 확대	
	4.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식, 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제공	
5. 성평등	5.1 성평등,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관련 활동, 직원 교육, 유해물질 관련 교육 제공 *유해물질 관련 교육 제공, 유해물질 관련 교육 제공 *유해물질 관련 교육 제공, 유해물질 관련 교육 제공
	5.2 유해물질,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5.3 유해물질,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7. 청정에너지	7.2 인공위성 에너지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위성 에너지 서비스 제공, 인공위성 에너지 서비스 제공 *인공위성 에너지 서비스 제공, 인공위성 에너지 서비스 제공
	7.3 에너지 효율성 증진	
	7.4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 증진	
8. 양질의 일자리	8.2 고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고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8.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8.4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9. 산업, 혁신, 인프라	9.4 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9.5 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9.6 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10. 불평등 해소	10.2 소득 불평등 해소, 사회적 불평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불평등 해소, 사회적 불평등 해소 *소득 불평등 해소, 사회적 불평등 해소
	10.3 소득 불평등 해소, 사회적 불평등 해소	
	10.4 소득 불평등 해소, 사회적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11.4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11.5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11.6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2.3 자원 효율성,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효율성,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자원 효율성,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12.4 자원 효율성,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12.5 자원 효율성,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13. 기후행동	13.1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대응
	13.2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대응	
	13.3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보전	14.3 해양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해양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14.4 해양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14.5 해양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15. 육상 생태계 보전	15.1 육상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육상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15.2 육상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15.3 육상 생태계 보전, 유해물질 사용, 유해물질 사용자를 위한 보호 강화 및 지원	

<그림 4-4> 깨끗한 나라 2023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출처 : 2023 깨끗한 나라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본 절에서는 보고서 전체에서 SDGs 목표가 주로 내부 운영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나, 특히 연결 타당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다중 목표 기술이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표 4-9>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활동으로, 보고서에서는 이를 SDG 3.4(비전염성 질환의 조기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활동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제도로, 작업환경에서의 신체 피로와 질환을 예방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복지 시스템의 일환이다. 활동 자체는 실행되었고 설명도 존재하지만, SDG 3.4가 지향하는 공공 보건체계 구축이나 사회적 건강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 구조와는 실질적으로 무관하다. 이처럼 활동의 결과가 SDGs 목표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는, 연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전형적인 22유형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비상사태관리규정 정비 및 화학사고 대응 교육’ 활동으로, 보고서에서는 SDG 12.2, 12.4, 12.5, 12.6 등 복수의 SDG 목표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해당 활동은 기업 내부의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체계 구축 활동으로, 주된 목적은 내부 직원의 안전 확보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해당 활동은 SDG 12의 각 세부 목표가 전제하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나, 사회제도적 변화와는 맞물리지 않는다. 특히 이 사례는 단일 활동에 다수의 SDGs 목표가 중복적으로 부여된 구조로, 활동의 성격과 무관하게 키워드에 따라 기계적으로 목표가 부착되는 보고 체계의 문제를 보여준다.

<표 4-9> 깨끗한 나라의 SDGs 활동 분석

분석 기준	사례 :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비상사태관리규정 정비 및 화학사고 대응 교육
SDGs 연결 타당성	부적합	부적합
활동 설명 구체성	있음	제한적
수혜 대상 명시	있음	부재
성과 및 효과 제시	제한적 기술	부재

자료 : 2022/2023 깨끗한 나라의 지속가능보고서, 부록의 SDGs 활동을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4-9>의 분석들에 따라 두 사례를 평가한 결과, 두 활동 모두 실제로 실행되었고 일정 수준의 설명도 포함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 SDGs 목표와의 연결이 적합하지 않다. 특히 수혜자 명시나 외부 효과에 대한 서술이 부재하며, 보고서 구조상 SDGs 목표의 실질적 해석이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는 SDGs 활동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보고가 전략적 수용이나 사회적 기여로 해석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연결 방식의 논리적 근거와 목적 적합성 확보가 보고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볼 때, 내부 목적 중심의 활동에 SDGs 목표가 후속적으로 결부되는 형식은 외형적 정당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사회문제 해결이나 제도적 책임 이행의 구조와는 거리가 먼 구조로 해석된다.

따라서 깨끗한나라의 사례는 22유형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보고 구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결 기준의 체계화와 해석 원칙

의 정립이 필수적임을 제시한다. 이는 제5장에서 논의될 SDGs 보고 구조의 제도적 보완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SDGs의 형식적 활용을 넘어 실행 기반과 공공성을 갖춘 보고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4.4.5. 휠라홀딩스 사례: 30유형

휠라홀딩스의 지속가능보고서는 SDGs 목표를 다수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설명 없이 단순히 목표만 나열된 구조를 보이며 <그림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호	세부 목표	휠라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	휠라 지속가능경영 참여 이해
1	1.1. 202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국산인기유관한 제품 및 서비스, 환경적 순격과 재산으로부터 노동자 취약성을 줄인다.	지역사회 참여	이해관계자 조종
8	8.1. 생산 활동, 품질과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운영 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경영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자원은 투자/인력유출/경영지원	책임경영 구축
10	10.2. 2030년까지 안전, 차별, 장애, 여성, 인종, 출신, 종교, 장애 및 기타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촉진하고 확대한다.	인권경영 다양성/포용성	이해관계자 조종
13	13.1. 2030년까지 합의된 국제체계에 따라 기후변화 및 모든 국가들에게 생애주기 동안 전환공약의 준수를 달성하고, 위험이 인식된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이해관계자, 물, 토양으로부터 배출을 크게 감소한다.	지속가능 제품 및 소재 폐기물 및 재활용 관리 포용성	채널 선조한
15	15.1. 기후변화 완화, 적응, 물 관리,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인력, 자원의 확보를 진행한다.	지속가능 제품 폐기물	기후변화 대응
16	16.1.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령을 대폭 감소한다.	윤리 및 반부패 투명라이선스	책임경영 구축
17	17.1.1기 파트너십의 강령과 목표달성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조, 포용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참여하고 추진한다.	공급망	공급망 투명성

<그림 4-5> 휠라홀딩스 2023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출처 : 2023 휠라홀딩스 지속가능보고서. 부록

이러한 보고 형태는 키워드 수준의 항목을 SDGs 세부목표에 형식적으로 연결한 데 그치며, 활동의 실체나 SDGs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30유형으로 분류하며 분석틀을 적용하고, 30유형이 지닌 한계와 특징을 <표 4-10>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휠라홀딩스의 보고서 내 SDG 8.3(창의성 및 혁신 촉진)과 연결된 ‘브랜드 포지셔닝’, ‘연구개발’, ‘품질경영’ 등의 키워드는 모두 활동 실행 구조나 내용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나열되어 있으며, SDG 10.2(포용성 강화)와 연결된 ‘인권경영’, ‘다양성·포용성’ 등의 키워드 역시 구체적인 실행체계나 맥락이 명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단어 수준에서의 SDG 목표만 존재할 뿐 활동의 실체나 실행 결과 등을 독자가 파악할 수 없게 하며, 보고서가 SDGs 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처럼 30유형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SDG 목표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택하고 기술하는 경우로, 보고된 활동이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이 어렵고, 활동과 SDGs 활동의 연결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SDG 보고가 갖추어야 할 투명성, 실행 기반성, 비교 가능성 등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며, 보고 체계가 SDGs 본래 취지를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0> 휠라홀딩스의 SDGs 활동 분석

분석 기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사례
SDGs 연결 타당성	불명확
활동 설명 구체성	부재
수혜 대상 명시	부재
성과 및 효과 제시	부재

자료 : 2022/2023 휠라홀딩스의 지속가능보고서, 부록의 SDGs 활동을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4-10>의 분석들에 따르면, 휠라홀딩스의 사례는 SDGs 연결 타당성 항목은 물론, 활동 설명의 구체성, 수혜자 명시, 성과 제시 등 모든 항목에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활동의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보고서가 SDGs를 형식적으로 활용한 채, 본래의 실행 기반성과 비교

가능성을 모두 상실한 구조임을 의미한다. 특히, SDGs가 단지 보고서 상의 장식적 요소로 소비되는 사례로서, 보고의 전략적 기능과 공공적 정당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실패 구조에 해당한다.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볼 때, 실행 여부와 연결 관계가 모두 불명확한 상태에서 SDGs 목표를 나열하는 행위는 보고의 전략성과 진정성을 동시에 훼손한다. 기업이 SDGs를 자사의 경영 전략이나 실행 구조와 연계하지 않은 채, 표면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이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SDGs의 근본 취지와도 충돌한다. 휠라홀딩스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SDGs 목표를 나열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연결이 논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활동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가 보고의 핵심 기준임을 다시금 확인시킨다. 휠라홀딩스 사례는 SDGs 보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구조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형식주의적 보고 행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4.5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 주요 민간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하여, SDGs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SDGs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은 총 880건의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결 타당성, 설명 수준, 수혜자 명시, 성과 제시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활동을 유형화하고, 대표 사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SDGs 보고는 전략 기획 수준, 제도 수용 태도, 실행 역량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활동 간 연결 방식이나 설명 수준, 성과 제시 여부 등에서 유형별 차이가 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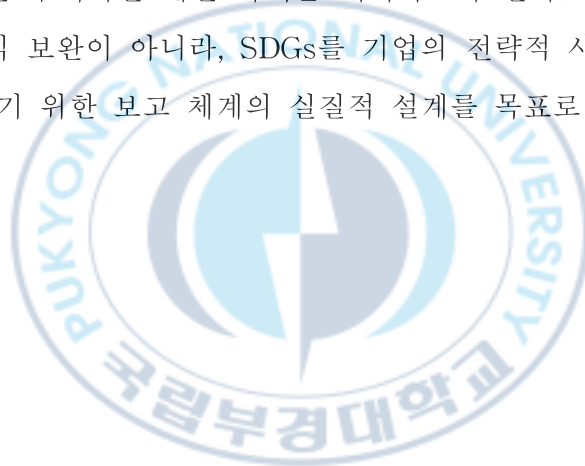
렷하게 드러났다.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기업 간 보고 방식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일부 보고서는 기존 활동에 SDGs 심볼을 덧붙이는 수준의 형식적 수용에 머물렀다. 이는 단순한 개념 정렬을 넘어서, SDGs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설명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분석으로 확인한 보고 구조의 한계는 단지 일부 기업의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고 체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문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오류는 네 가지 구조로 정리된다. 첫째, 실행 내용과 무관하게 목표를 연결하는 자의적 연결 구조는 활동과 목표 간의 정합성을 약화시킨다. 둘째, 활동 설명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정보 부족 구조는 실행 실체의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수혜자나 성과 정보가 누락된 구조는 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평가할 수 없게 하며, 넷째, 동일한 활동이 기업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기술된 비일관적 보고 구조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러한 오류 구조는 SDGs 보고가 갖추어야 할 핵심 기능, 즉 목표 연결의 타당성, 실행 기반의 설명, 성과의 객관적 제시, 기술 형식의 일관성을 전반적으로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보고서의 신뢰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내부 보고 방식의 미비뿐 아니라, 외부 기준의 수용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일부 기업은 GRI Standards, SDG Compass, K-ESG 가이드라인 등 외부 기준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기준을 충족한 사례도 일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기준을 채택한 보고서조차 활동 기획의 논리성, 실행의 실체, 성과 기반 설명 등 SDGs 보고의 본질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외부 기준의 존재만으로는 보고의 전략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GRI 기준을 채택한 기업 보고서에서도 실행 기반 설명과 성과 기술이 생략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였으며

(Fonseca et al., 2014), Compass를 따르는 보고서에서도 목표와 활동 간 실질적 연결이 부족하고 수혜자 정보가 불명확하게 제시되는 경향을 비판한 바 있다(Rosati and Faria, 2019). 이처럼 보고의 진정성은 외부 기준의 채택 여부와 함께,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수용하고 설계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기업의 SDGs 보고의 연결 기획의 타당성 부족, 실행 기반의 생략, 성과 및 수혜자 정보의 결여, 보고 형식의 불일관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다음 장에서는 SDGs 보고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 과제는 단순한 형식 보완이 아니라, SDGs를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수용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보고 체계의 실질적 설계를 목표로 한다.



제5장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SDGs 전략과제

제4장의 분석 결과, SDGs 보고는 개별 기업의 일회성 오류가 아닌, 보고 체계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타당성 부족, 활동 설명의 구체성 결여, 성과 및 수혜자 정보의 누락, 보고 형식의 불일치라는 네 가지 오류 구조는, SDGs 보고가 실행력과 전략성을 갖춘 수단이 되기보다 형식적 정렬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SDGs가 지향하는 전략성과 공공성의 통합 가치가 보고 구조 안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부터 피드백에 이르는 보고 흐름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DGs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은 이를 전략적으로 해석하거나 내부 기획 구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본업과 연계되지 않은 채, 실행 맥락은 생략되고 성과는 누락되며, 외부 소통은 형식적 보고에 그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본 장은 SDGs 보고의 오류 구조를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라 전략적 사회공헌 체계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로 진단한다. 이에 따라 SDGs 보고 체계를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한다. 목표와 활동 간 정합성 확보, 실행 기반의 활동 설명 체계화, 성과 및 수혜자 정보 기반의 평가 가능성 제고, 보고 형식 정렬을 통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소통 구조 강화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는 <표 5-1>을 통해 정리된다. 각 과제는 4장에서 분석된 오류 유형과 직접 연계되며, SDGs 보고가 전략 수립, 실행, 공시로 이

어지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천적 설계를 제안한다.

<표 5-1> 기업 SDGs 보고의 구조적 한계 유형

SDGs 보고의 구조적 한계 유형	핵심 문제	주요 사례유형
목표와 활동 간 연결 체계성 강화	활동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SDGs 목표와 연결하거나, 본질적으로 부적합한 연결	21유형, 22유형
활동내용의 구체성 강화	실행 주체, 방식이 누락되거나 부록에 나열되는 등 충분한 설명의 부재	30유형, 일부 12유형
활동성과의 객관성 제고	성과나 수혜 대상이 누락되어 사회적 기여, 성과 측정이 어려움	전 유형 전반
이해관계자 맞춤형 보고체계 정립	동일 활동을 비교하는데 기업 간 형식이 달라 비교 및 피드백이 어려움	전 유형 전반

자료 : 저자 구성

5.1 목표와 활동 간 연결 체계성 강화

본 연구 제4장의 분석 결과, 특히 21유형과 22유형에서는 활동의 성격이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SDGs 목표가 사후적으로 결부되거나, 의미상 부적절한 목표가 억지로 연결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결 오류는 기술상의 오류를 넘어, SDGs의 전략적 기획 기능과 기업 보고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이 문제는 개별 보고자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기업이 사회문제를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획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전략적 사회공헌의 관점에서, SDGs 활동은 실행 이후의

정리 대상이 아니라, 사회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획의 출발점에서 전략화 되어야 한다.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은 단순한 기술이나 외형적 정렬이 아닌, 기획 단계에서 형성된 전략적 판단 체계이어야 하며, 이 판단의 정합성이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과 목표 간 연결을 사전에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부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 기업의 ESG 전담 부서는 활동의 목적, 방식, 대상, 성과 등이 연결하려는 SDGs 목표 및 세부 목표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를 ‘SDGs 연결 판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는 절차를 내재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협회 또는 지역 ESG 자문단과의 협업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을 기획 초기 단계에서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연결 판단 기준의 정비와 공시 항목 구조 마련 등 일관된 제도적 요건이 필요하다. 산업별 연결 기준선의 정립, 체크리스트의 표준화, 공시 항목 구조의 설계 등은 기업 내부 판단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환경부는 산업별 대표 활동과 SDGs 목표 간 연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동 유형별 적합 목표 목록 및 연결 판단 기준선을 K-ESG 기준 내에 명시함으로써, 기업이 자의적 연결 판단을 피하고 사전 검토 가능한 기준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SDGs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연결성을 고려하는 구조를 유도해야 한다. SDGs 이행 조정위원회는 활동 유형에 따라 연결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연결 판단 체크리스트 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ESG 공시 가이드라인과 민간 평가체계에 반영되도록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의 판단 체계와 외부의 평가 기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결 판단이 보고 구조 전체의 전략 설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판단 기준

이 실제 보고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공시 양식 내 판단 항목의 기술 위치와 형식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항목을 ESG 공시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목표와 활동 간 연결의 판단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시와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업의 전략 판단 구조를 내부 실행체계에 통합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들은 단순히 활동과 목표 간 연결을 올바르게 정렬하기 위한 형식적 개선이 아닌,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회문제 인식과 SDGs 목표 설정을 구조적으로 연계하도록 유도하는 실행 프레임으로 기능해야 한다.

5.2 활동 내용의 구체성 강화

제4장의 분석 결과, 특히 30유형 사례에서는 본문에 목적, 방식,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한두 문장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활동의 실제 성격이나 전략적 기획 의도는 외부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해당 활동의 실재 여부조차 불분명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설명의 결핍은 12유형 일부 사례에서도 반복된다. 활동이 존재하더라도 설명이 단순하거나 맥락이 생략된 경우, 기업이 수행한 사회공헌 활동이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후속 정리 차원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실행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전략적 설득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전략적 사회공헌의 관점에서, 활동 설명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어떤 전략과 실행 구조로 대응했는지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 서술 구조이다.

실행 기반성은 활동의 실체를 보증하는 역할을 넘어서, 그 활동이 어떤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설정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략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공헌 활동이 전략 수립, 실행, 성과관리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설명의 구체성은 이러한 흐름을 문서화하는 전략적 증거로 기능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 설명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항목을 명확히 정리하고, 설명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술 양식이 필요하다. 모든 활동은 활동명, 목적, 방식, 대상, 성과 등의 기본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정성적 설명과 정량 지표를 병행하여 기술해야 한다. 본문과 부록 간 서술 수준의 불균형이나 항목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술 항목과 수준을 유지하는 통합 템플릿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활동 설명의 전략적 구조화를 위해서는, 기술 항목별 작성 기준 정립과 설명 수준에 대한 최소 요건 제시하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K-ESG 기준 내 활동 설명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로 기술 수준의 기준선과 작성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설명 요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활동명, 목적, 방식, 대상, 성과 등의 필수 항목이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고서 간 설명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설명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DGs 이행 조정위원회는 활동 유형별로 정성·정량 항목을 기술하는 공통 설명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SDGs 보고의 작성 지침으로 표준화한 후, ESG 평가 기준 및 민간 공시 평가기관의 기술 기준과 일관되게 연계하는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들은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전략 기획과 실행 기반 안에서 문서화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의 설명 수준은 기업의 전략 판단의 투명성, 사회문제 인식 구조, 실행 의도 등을 보여주는 전략적 지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기준은 공시 시스템의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5.3 활동 성과의 객관성 제고

SDGs 활동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혜자 정보와 성과 지표가 누락되는 사례는 기업 보고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본 연구 제4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사례 유형에서는 활동명과 간단한 설명만이 제시되었을 뿐, 해당 활동의 실행 대상이 누구였는지, 또는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수혜자가 불명확하거나 실질적으로는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외부 사회를 위한 SDGs 목표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공공성과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불어 성과를 단순한 수치로 나열하거나, 그 수치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여도를 해석하지 못한 채 나열에 그치는 구조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활동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거나 사례와 비교하는 데 커다란 제약을 발생시킨다.

전략적 사회공헌의 관점에서, 기업의 SDGs 활동은 단순한 실행 여부가 아니라 실행 결과가 사회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수혜 범위와 효과의 정당한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과 및 수혜자 정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어떤 전략적 판단과 실행을 통해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선택적 항목이 아니라 전략 보고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며, 활동의 사회적 정당성과 보고서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및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내부 기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은 활동별로 수혜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 항목을 정량 및 정성 지표를 포함하며, 활동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활동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높이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성과 기반의 보고 체계로 전환한다.

수혜자 정보와 성과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의 표준화와 최소 데이터 기준 정립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군별 대표 작성 예시와 기술 순서의 정형화는 기업 내부의 형식 구조를 조율하고, 이해관계자 간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는 외부 전략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환경부는 K-ESG 기준 내 성과 지표 항목에 대해 기술 요건과 최소 데이터 요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성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공통된 지표 틀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SDGs 이행 조정 위원회는 활동 유형별로 수혜자와 성과 지표 간의 매핑 구조를 통합한 표준 템플릿을 개발하고, 이를 ESG 공시 평가 기준 및 지속가능보고서 심사 항목과 연계되도록 조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간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통계청은 국가 단위의 SDGs 지표와 기업 보고 항목 간의 연계 가능성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기업의 성과 데이터를 공공 수준에서 해석 가능하도록 만드는 중간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서와 국가 SDGs 이행 간의 체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단지 성과 정보를 충실히 기술하게 만드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

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수혜자 및 성과 정보는 단순한 보완적 항목이 아니라 활동의 정당성과 사회적 가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책임 구조의 핵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설득력뿐 아니라 전략적 실행 구조의 완성도를 함께 담보하는 핵심적 결과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5.4. 이해관계자 맞춤형 보고체계 정립

SDGs 활동을 기술하는 방식이 기업마다 지나치게 상이하여 동일한 활동임에도 해석과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는 국내 SDGs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 중 하나다. 본 연구 제4장의 분석에서도 확인되듯, 어떤 기업은 SDGs 활동을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유사한 활동을 수행한 다른 기업은 부록의 표 형식으로 간단히 나열하거나 활동명만을 기재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처럼 보고서 내 기술 위치, 서술 방식, 항목 순서 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채 각기 다르게 구성됨에 따라, 활동의 성격이나 목적, 성과 구조, 사회적 기여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고, 보고 내용을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서술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기업들이 SDGs 활동에 대해 정형화된 기술 구조 없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는 보다 본질적인 보고 체계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KRX 상장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161건 중, 본문과 부록에 SDGs 활동과 세부목표를 함께 명시한 사례는 32건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보고 위치나 설명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의미 있는 비교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결국 보고 항목의 기술 방식 자체가 활동 내용

보다 해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사회공헌의 관점에서, 보고의 기술 형식은 단순한 편집이나 문서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수행한 사회적 기여를 외부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정보의 배열과 형식은 보고 내용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결정하며, 기술 항목 간 일관성과 해석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충실한 활동이 기술되었더라도 외부에서는 그것을 평가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형식적 불투명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SDGs 활동 보고는 내용 중심의 충실성뿐 아니라 기술 구조의 정합성과 통일성이라는 형식적 조건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적 준비가 보고 체계의 전략적 설계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내 SDGs 활동 기술 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은 모든 SDGs 활동에 대해 활동명, 목적, 수행 방식, 수혜자, 성과 등의 핵심 항목을 동일한 서술 순서와 구문 구조에 따라 기술하고, 본문과 부록 간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기술 위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동일한 활동임에도 보고서마다 다른 명칭, 분류, 배열로 기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작성 조직에서는 최소 기술 항목 기준과 형식 일관성을 점검할 수 있는 사전 검토 기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부 기준은 ESG 부서가 주관하여 작성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합성 검토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기술 구조의 사회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SDGs 활동 보고의 해석력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 위치의 표준화, 항목 배열 기준의 설정, 산업별 기술 예시 제공과 같은 구조화된 제도적 요건이 필요하다. SDGs 이행 조정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군별 공통 작성 가이드를 표준화하고, ESG 공시 가이드라인과 민간 평

가기준 체계 간 기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비는 기업 보고의 형식 통일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SDGs 활동에 대한 해석과 비교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중심의 전략적 소통 구조를 제도화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형식의 표준화는 내용의 신뢰성을 가시화하는 전제가 되며, 보고 구조의 설계는 사회적 기여와 전략적 기획이 외부와 연결되는 구조적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SDGs 활동 보고의 구조적 분석과 유형별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2023년 KRX 상장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1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SDGs 목표와 활동을 실질적으로 연계한 보고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된 11유형조차 형식과 설명 방식에서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구조적 오류의 반복 양상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SDGs 활동을 보고 형식과 설명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별 개선 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기여를 평가하고, 실제 정책 및 제도 설계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6.1 연구 성과 및 기여

본 연구는 SDGs 보고가 단순한 목표 명시나 활동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기반에 근거하여 기획되고 전달되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기술된 SDGs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SDGs 활동은 보고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은 어떠한 구조로 나타나는가? 분석 결과, 많은 기업들이

활동의 실제 맥락이나 성격과 무관하게 SDGs 목표를 형식적으로 부착하거나, 의미상 적합하지 않은 목표를 연결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연결 방식은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 보고서에서는 활동 설명이 생략되거나 단순 나열에 그쳐, 실행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보고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SDGs가 기획의 출발점이 아닌 사후적 응답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은 어떤 기준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으며, 유형별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연결의 타당성과 설명 수준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다섯 가지 유형(11, 12, 21, 22, 30)으로 분류하였다. 11유형은 활동과 SDGs 목표 간 연결이 논리적으로 적합하고,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였다. 반면, 21유형과 22유형은 연결의 논리성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였고, 30유형은 설명 자체가 생략되어 실행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유형별로 구조적 차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이러한 오류가 일부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고 전반에 내재된 경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각 유형 내에서 수행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형, 관리형, 보호형, 역량강화형, 채용연계형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으며, 유형별로 기획 방향성과 사회적 지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단순한 연결 오류뿐만 아니라, 활동 설계 방식 전반에 걸쳐 구조적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셋째, 유형별 보고 구조는 어떤 해석 가능성과 한계를 지니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보고 유형별 특성이 기업의 전략 판단이나 제도 수용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외부 압력에 대한 형식적 대응이 보고서 작성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1, 22, 30유형은 목표 연결이나 활동 설명이 형식화되어 있었고, 표면적인 정합성 확보에 중점을 둔 보고 방식이 다수 나타났다. 이는

SDGs가 기업 전략의 일부로 통합되지 못하고, 외부 공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보고서의 형식적 구성 차이는 활동 간 비교 가능성과 해석의 일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기업 간 보고 형식의 차이가 활동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보고되었는지에 따라 실행 배경, 성과, 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보고의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단순 표 형식으로 부록에 기술된 활동은 실행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보고서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 방식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고 구조상의 오류는 어떤 개선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정합성을 기획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판단 체계를 정립하는 것. 둘째, 활동 설명에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기준을 설정하는 것. 셋째, 이해자 정보와 성과 지표를 포함해 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 구조를 설계하는 것. 넷째, 보고서의 기술 위치, 항목 구성, 서술 방식 등을 일정 수준에서 표준화하여 보고 간 비교 가능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지 외부 평가를 위한 요건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실행 기반을 명확히 전달하고 기획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활동과 목표 간 연결 구조, 설명 수준, 이해자 및 성과 정보, 기술 형식 등에서 반복되는 오류 구조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SDGs 보고가 보다 신뢰성 있는 실행 기

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특히 보고의 구조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의 설계 방식과 전달 구조 전반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기존 SDGs 관련 논의들이 개별 활동의 내용이나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보고서의 형식과 구조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오류의 반복 양상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활동과 목표 간의 연결 구조, 활동 설명의 구체성, 이해자 및 성과 정보의 명시 여부, 기술 형식의 일관성이라는 네 가지 오류 구조를 중심으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 과제를 도출하였고 SDGs 보고의 실행 기반과 전략적 설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SDGs 보고를 단순한 외부 요구 대응이나 평가 수단이 아니라, 사회공헌 전략 수립과 실행 설계의 출발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기업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SDGs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구조를 기업 전략으로 해석하는 분석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보고 오류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구조를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형별 보고 경향을 기반으로 제시된 네 가지 전략 과제는 기업 실무, ESG 공시, 정책 설계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무와 학술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대상이 2023년 KRX 상장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한정되어 있어, 산업군별 특성이나 기업 규모, 공공기관 또는 해외 사례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보고서 기술 내용의 판단은 정성적 기준에 근거하였으며, 서술 방식에 대한 해석이 연구자의 분석 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보고서에 기술된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거나,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및 실행 체계를 직접 확인하는 실증적 자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보고 구조와 실제 활동 사이의 괴리를 실증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제5장에서 제시된 전략 과제들은 외부 기준과 정책 조정 중심의 제도적 접근에 치우친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내부의 전략 판단 체계나 사회문제 인식 구조와 같은 자율적 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을 수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민간기업의 SDGs 보고 구조를 2023년도 지속가능보고서 161개를 전수조사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에서 유형화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분석 대상을 KRX 상장기업으로 한정된 점, 정성적 판단 기준에 따른 해석 가능성, 보고 내용과 실제 실행 간의 교차 검증 한계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조직과 산업을 포함하고, 정량적 분석 및 질적 사례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SDGs 보고가 단순한 기술적 보고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전략과 학습 구조를 반영하는 설계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환경뿐 아니라 내부 전략 인식 체계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근. (2024). *기업별 ESG 경영활동 비교사례와 UN SDGs 연계성 연구: 대기업·중견·중소기업·공기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중심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김성호, 박성배. (2010).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전략과 방향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7(4), 39 - 65.
- 김이준. (2023).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ESG 성과 향상과 SDG 추구에 관한 연구* (국제학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 김준엽, 이희진. (2018).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표준의 기여와 역할. *국제개발협력연구*, 10(3), 3-19.
- 김태균, 김보경. (2021).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제개발협력연구*, 13(2), 25 - 52.
- 김효정. (2022).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 방안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업의 ESG 활동 연계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6(5), 153 - 180.
- 박정연. (2012). 『침묵의 봄』의 배경과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학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신지영. (2022). *지금 당장 ESG*. 천그루숲.
- 안경주.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IT 기업의 특성 분석* (생명환경과학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 유승엽, 김은희. (2007). 기업의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적 책임경영연구*, 6(1), 45 - 66.

- 이상미. (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 수립에 따른 KOICA 보건 분야 전략 및 사업변화 연구*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장재현. (2012). 리우+20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4(2), 89 - 115.
- 한상범, 권세훈, 임상균. (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ODA 정책연구 2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2021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환경부. (2022). *K-ESG 가이드라인 v1.0*. 환경부.
- 한국ESG기준원. (2023). *KCGS REPORT*, 13(12). 한국ESG기준원.
- KoFID. (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Bebbington, J., Unerman, J. (2018). Achieving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enabling role for accounting research.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31(1), 2 - 24.
- Bose, S., Khan, H. Z. (202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porting and the role of country-level institutional factors: An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35, 130290.
- DiMaggio, P. J.,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Fonseca, A., McAllister, M. L., Fitzpatrick, P. (2014). Sustainability reporting among mining corporations: a constructive critique of the GRI approach.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84, 70 - 83.
- Fukuda-Parr, S., McNeill, D. (2019). Knowledge and politics in setting and measuring the SDGs: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Global Policy*, 10(S1), 5 - 15.
- Oliver, C. (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 - 179.
- Rodenburg, K., Rowan, M., Nixon, A., Christensen Hughes, J. (2022). The misalignment of the FT50 with the achievement of the UN's SDGs: A call for responsible research assessment by business schools. *Sustainability*, 14(15), 9598.
- Rosati, F., Faria, L. G. (2019). Addressing the SDGs in sustainability reports: The relationship with institutional factor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15, 1312 - 1326.
- Siew, R. Y. J. (2015). A review of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tools (SRTs). *Journal of Environmental Investment*, 16(1), 91 - 106.
- Silva, S. (2021). Corporate contribution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empirical analysis informed by legitimacy theor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92, 125962.
- Unilever. (2021). *Sustainable Living Plan: Progress Report*. Unilever.
- European Commission. (2022).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 IFRS Foundation. (2022).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 SDG Compass. (2015). *SDG Compass: The guide for business action on the SDGs*. GRI, UN Global Compact.
- Siemens AG. (2022). *Sustainability Report 2021/22*. Siemens AG.